



I&S

INTEGRATION & SOLUTION

아이앤에스는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 길이 있음을 믿습니다

대표변호사 조영길

고객의 문제는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아이앤에스(I&S)의 원칙은 모두 같습니다.

의뢰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른길에 대한 믿음.
보편적이며 타당한 원칙을 통해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정의를롭게 해결하는 것.
아이앤에스(I&S)의 구성원들은
고객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며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이앤에스(I&S)의 구성원들은
수많은 현장 실무 경험을 통해 학습하고 성장한
정의에 대한 믿음으로 노사관계 개선의 바른길을 발견하여
의뢰인들과 함께 걸어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상대적 당파성의 원칙에서 보편적 타당성의 원칙으로’

아이앤에스 법무법인
노사관계개선연구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07-34
한신인터밸리24 동관19층

Telephone 02 2183 2700 www.ins-lab.co.kr

살아 있는 책으로 공부하라

소중한 우리의 자녀를 올바르게 교육하고 싶은 분들에게
살아 있는 교육의 세계로 안내할 명저 「살롯 메이슨의 살아 있는 교육」

언제부터인가 신뢰할 수 없게 된 공교육, 학교, 교사, 학생. 어디서 어떻게 어긋나기 시작했는가?
내 아이를 제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이제는 나와 내 자녀부터 변화할 때이다. 「살롯 메이슨의 살아 있는 교육」과 함께 바르고 온전하게 교육하는 것, 그것이 작은 변화의 출발점이자 진정한 교육의 완성이 될 것이다.

살롯 메이슨의 교육 철학은 19세기 영국을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개개인의 특성에 대한 배려와 존중,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진리에 대한 믿음, 삶과 교육의 통합 등등 그의 사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적용될 수 있는 소중한 자녀교육 방법이다. 역사, 문학, 음악과 같은 다양한 과목들을 좋아하고 스스로 학습하는 즐거움을 알 수 있도록 길을 제시하고 있다. 아이들은 다양한 과목과 관계를 맺으면서 성품을 발달시키며, 배움이란 커다란 이야기 속의 작은 그림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제 우리가 살롯 메이슨의 도움을 받는 일만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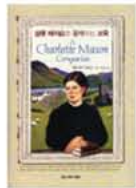


「살롯 메이슨의 살아 있는 교육(전6권)」

▶ 추천의 글
공부가 재미있고 교육도 즐겁다니,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살롯 메이슨의 책들이 임해지는 곳마다 사랑과 진리를 깨닫는 재미와 즐거움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혜택을 받는 아이들이 훗날 세상의 구석구석에서 빛과 소금이 되는 날들을 꿈꾸어봅니다.
-성인심리학의 선교사 한국지부 대표

교사들은 살롯 메이슨의 아동심리학에 대한 깊은 통찰과 그녀가 주장한 성품훈련과 정신훈련을 위한 새로운 원칙에서 많은 것을 얻었다. 그녀의 가르침으로 도움을 받은 사람들의 감사와 기억 속에서 그녀의 사상은 살아 있을 것이다.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살롯 메이슨 교육에 대해 알고싶은 분에게 권합니다



살롯 메이슨과 함께하는 교육
카렌 안드레올라 지음 | 임중원 옮김



살아 있는 책으로 공부하라
캐서린 레비스 지음 | 임신희 옮김



살롯 메이슨 교육법
캐서린 레비스 지음 | 임신희 옮김

꿈을 이루는 사람들은 기독교 홈스쿨링과 기독교 대안학교를 위한 교재 및 커리큘럼을 공급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근거하여 학문과 성경을 통합한 도서 및 교재를 소개함으로 통합적 사고를 가진 아이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Tel.02)529-7722 | www.dctybooks.co.kr

꿈을 이루는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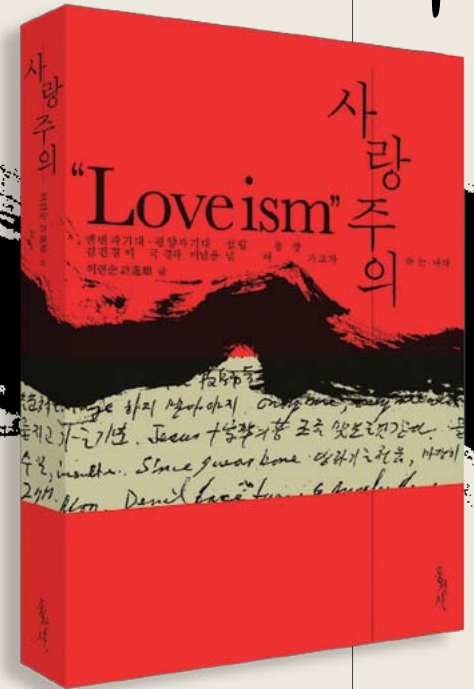
“Loveism”

사랑주의

엔벤과기대·평양과기대

설립총장 김진경

국경과 이념을 넘어선 사랑의 행보



이념과 사상의 벽을 뚫고
중국과 북한에 학교를 세운 유일한 사람,
‘사랑주의자 Loveist’ 김진경 총장의 삶으로 돌아보는
세계 평화를 위한 길!
중국과 북한에 이어 아랍의 문도 열기 시작하며
급변하는 21세기, 대립과 반목을 불식시킬 대안으로 떠오르는
‘사랑주의’의 참모습을 만나본다.

허련순 글 | 396쪽 | 15,000원

T. 333-5161 <http://www.hsbooks.com>

홍익사



엄숙하고 소박한 결혼문화

손봉호 (대표주간)

한 사람의 인생에서 결혼식만큼 중요한 의식은 없다. 태어나는 것과 죽는 것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그와 관계된 의식도 당사자에겐 무의미하다. 돌잔치나 장례식이 아무리 성대하고 뜻있게 치러졌다 해도 그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결혼식과 그와 관계된 행사에는 당사자의 생각이 반영될 수 있고 멋진 결혼행사는 그 사람들의 삶과 이미지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다. 일생 회고하면서 즐거워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결혼식, 자녀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결혼식, 친구와 친지들이 진심으로 부러워하고 칭찬할 수 있는 결혼행사, 교회와 사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혼식을 올릴 수 있다. 일생에 한 번밖에 없는 중요한 행사를 사람들이 하는 방식대로 그저 적당히 치르는 것은 너무 아깝지 않은가?

한국의 결혼문화에서 적어도 두 가지는 고쳐야 한다. 하나는 결혼식을 그저 통과의례의 하나만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물론 결혼식은 하나의 통과의례다. 그러나 취임식이나 졸업식과 같은 성격의 통과의례는 아니다. 졸업식을 하지 않았다 하여 졸업 자격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취임식이 없었다 하여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다. 그러나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으면 여러 가지 면에서 온전한 결혼이라 할 수가 없다.

결혼의식의 핵심은 서약이다. 신랑과 신부가 증인들과 하나님 앞에서 죽음이 둘을 갈라놓을 때까지 어떤 경우여라도 서로에게 신실하고 부부의 대의와 정조를 지킬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서약은 단순히 하나의 이례적인 형식이 아니라 국가 간의 조약이나 사업상의 계약과 같이 실제적인 의무와 권리가 발생하는 근거로 보아야 한다. 부부는 피로 연결된 자연적인 관계가 아니라 두 성인의 서약으로 맺어지는 언약의 관계다. 시내산 언약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민의 지위를 얻은 것처럼 신랑과 신부는 혼인서약으로 비로소 남편과 아내가 되는 것이다. 결혼식을 올리고 하객을 초청하는 것은 그 서약의 증인이 되어 약속수행을 더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압력을 받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결혼식은 엄숙하게 치러야 하고 결혼서약은 신실하게 해야 한다.

또 하나 고쳐야 할 폐습은 결혼잔치를 돈 잔치로 만드는 것이다. 모든 신성한 것은 돈과 무관해야 하고, 결혼이 신성하다면 돈은 거기에 개입되지 말아야 한다. 돈을 바라는 결혼하는 것은 상대에 대한 모독이고 결혼의 신성함에 대한 모독이다. 수많은 청첩장을 뿌리고, 일급호텔 예식장에서 인기 악단을 동원하여 하객들에게 돈 사랑을 하는 것은 신랑, 신부의 행복과는 무관하게 부모의 허영심이 상연하는 코미디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줄 알지만, 오히려 질투하고, 돈 없는 사람들은 서러워한다. 사람을 질투하게 하고 사람을 서럽게 하는 결혼이 의미 있고 행복할 수 있겠는가? 그리스도인 가정은 그런 광대놀이를 하지 말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사회의 잘못된 결혼문화를 고쳐야 한다. 한국 사회와 교계에서 존경받는 이만열, 김일수, 고 김인수 장로 등은 자녀 결혼식에 청첩장을 돌리지 않고 친척, 친지 몇 분만 초청하여 조촐하고 엄숙하게 예식을 치렀다.

신혼가정에 필요한 것 모든 것을 부모가 다 공급해 주는 것도 아주 크게 잘못하는 것이다. 신혼부부가 열심히 일하고 철저히 아껴서 반짝거리는 새 손가락 하나, 새 접시 하나 사 들고 마주 보면서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가? 그런데 부모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왕창 공급해 버리는 것은 얼마나 잔인한가? 자녀에게 주는 것은 모든 부모의 즐거움이다. 그런 즐거움을 자신들이 누리기 위해서 신혼부부의 잔잔한 행복을 빼앗아 버리는 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돈이 가정의 행복을 위한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방해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부모의 경제적 책임은 자녀를 양육하고 필요한 교육을 받게 하는 것으로 끝나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손을 벌려야 할 정도로 곤궁한 상황이 아니면 물질적으로 돕지 않는 것이 자녀의 책임감과 독립정신을 키우는 것이고 그들의 자존심을 존중하는 것이다. 젊어서 하는 고생은 사서라도 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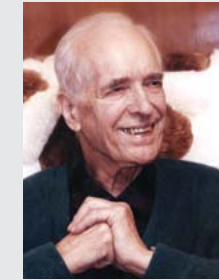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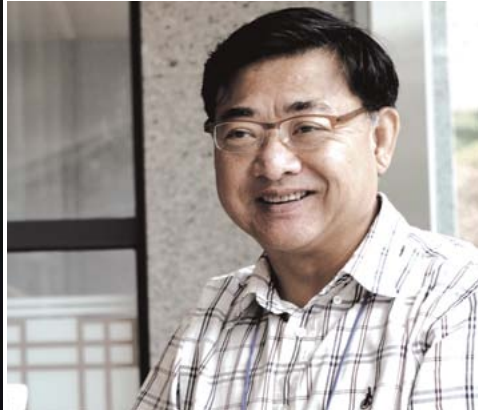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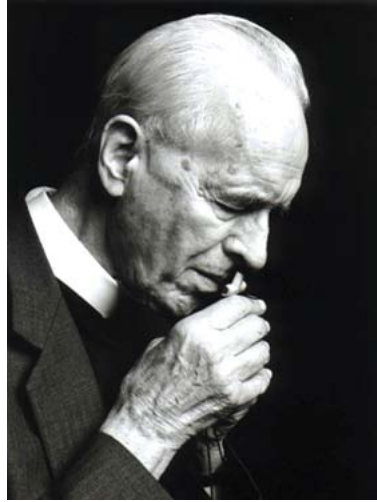


혼수가 적다고 하여 며느리를 구박하는 못난 부모들이 가끔 있다. 인도 같은 후진국에는 결혼지참금(dowry) 제도가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남존여비를 고수하는 후진문화의 전형적인 악습이고, 우리의 혼수제도는 그런 잘못된 악습의 잔재다. 모든 사람의 평등한 인권을 존중하고 여권신장에 앞장선 한국 기독교가 반드시 제거해야 할 전통이다. 혼수에 집착하는 것은 며느리의 권한이 점점 커지는 시대에 별것 아닌 것으로 늙어서 구박받을 빙거를 만드는 어리석음이기도 하다.

엄숙하고 조촐하며, 모두가 축하하고 즐거울 수 있는 기독교적 결혼문화가 정착되기 바란다.



손봉호 본지 대표주간,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이사장. 서울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암스테르담자유대학교대학원에서 철학박사를 받았으며 한국외대, 서울대 교수를 거쳐 동덕여대 총장과 세종문화회관 이사장을 역임하였다. 서울대 명예교수, 고신대 석좌교수이며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로 섬기고 있다.



표지인물
대천덕

〈월드뷰〉는 우리사회에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확산되기를 소망하며 기독교학문연구에 뿌리를 두고 발행하는 기독교 세계관 전문잡지입니다. 일상 속 깊이 기독교세계관의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리고 더 많은 이들에게 기독교세계관을 소개하기 위해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후원 국민은행 602-01-0667-971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COVER STORY

- 08 하나님의 사람, 대천덕 - 10주기를 맞은 대천덕 신부님의 삶을 돌아보며_양승훈
- 12 50번째 생일을 준비하고 있는 예수원을 소개합니다_예수원

SPECIAL

- 16 진짜 결혼을 하라_박수용
- 18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결혼문화_주요섭
- 22 예비시장학교를 통한 결혼문화의 회복_함승애

COLUMN

- 04 대표주간 칼럼 엄숙하고 소박한 결혼문화_손봉호
- 30 월드뷰가 만난 사람 My Story in God's Story_심재승 (대담 : 유경상)
- 37 월드뷰 서가 기독교교육선언 - 어린이를 내게 오게 하라_이해지
- 40 대중문화 속 가족이야기 텔레비전 중매쟁이가 말하는 결혼상대 고르는 법_박진규
- 44 그림책이야기 파란색 꼬마 물고기가 나빠요_현은자
- 48 미술이야기 정해숙, 영적인 보화를 담아내다_서성록

CULTURE

- 56 유머 어느 국회의원의 고해성사_손봉호

BOOK REVIEW

- 52 서평 십일조_이상용

NEWS

- 57 월드뷰 뉴스



좌측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문보기는 네이버 블로그 <http://cworldview.blog.me>에서 가능합니다.

사단법인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는 삶과 학문의 전 분야에서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이 확인될 수 있도록 제 분야에 대한 기독교적인 관점을 정립하고 이를 확산시키며 이와 병행한 실천을 진작시키고자 하는 신앙과 학문의 공동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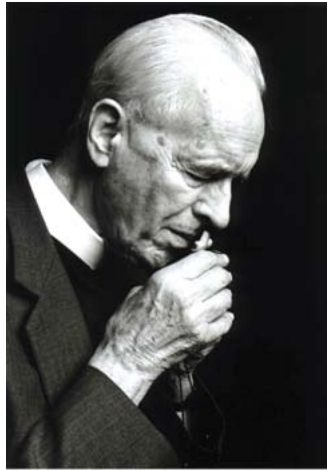
대표주간 손봉호
발행인 김승욱
편집인 김건주
편집위원 김승태, 김혜정, 신현기, 유경상,
장유진, 차명실
자문위원 유진희, 정종모, 이상정
에디터 신효영
교정/교열 김선경
디자인 황정희
인쇄 완산정판사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주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페이스북 [facebook.com/cworldview](https://www.facebook.com/cworldview)

하나님의 사람, 대천덕

10주기를 맞은 대천덕 신부님의 삶을 돌아보며

☞ 양승훈 원장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제가 대천덕 신부님을 처음 뵈었던 것은 1978년 가을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때 신부님은 제가 다니던 한국과학기술원(현 KAIST) 축제에 특강 강사로 오셨습니다. 그로부터 오랜 세월 동안 저는 가까이서, 때로는 멀찌감치 떨어져 신부님을 뵈면서 살았습니다. 2001년 11월, 밴쿠버에 있는 저의 집에서 신부님 부부를 마지막으로 뵈 때까지 34년간 저는 예수원을 스무 번 이상 방문했습니다. 비록 1997년, 우리 가족이 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VIEW) 사역을 위해 캐나다로 이주하면서부터 자주 방문할 기회는 없어졌지만 그래도 예수원은 늘 마음의 고향이었고, 신부님은 저의 멘토였습니다.

신부님을 처음 뵈었을 때 저는 20대 초반이었고 신부님은 막 60세 고개를 지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제가 기억하는 신부님은 60세부터 세상을 떠나시던 때까지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신부님의 마지막 24년을 지켜보았으며, 그분의 원숙한 모습만을 기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년은 인생의 추수기이므로 삶의 연륜이 묻어나는 노년의 모습이야말로 진정한 신부님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기억하는 신부님의 모습은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말씀 중심의 사람

신부님은 말씀에 충실한 복음주의자로 살았습니다. 신부님은 어떤 이슈에 대해서도 늘 말씀의 잣대를 사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전문 신학자는 아니었을지라도 신부님은 한평생 성경 원어 사전을 가까이에 두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정확하게 무엇인지를 깊이 연구했습니다. 그렇다고 신부님은 경직된 문자주의자는 아니었습니다. 신부님은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분별할 줄 알았고, 상황화의 의미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신부님이 기독교 대학에 대해 유난한 열정을 가지셨던 것도 말씀에 근거한 교육과 학문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언젠가 기독교대학설립동역회(이하 동역회) 몇몇 지도자들이 찾아왔을 때 신부님은 이런 얘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느 기독교대학 교수들 모임에서 신부님이 “여러분은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을 어떻게 성경이나 여러분의 믿음과 관련시킵니까?”라고 물었을 때

어느 교수님이 “저는 수업에 들어갈 땐 저의 신앙을 강의실 문 밖에 놓고 들어갑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때문에 신부님은 기독교대학을 설립하자고 모인 학자들의 단체인 동역회의 초대 이사장으로 오랫동안 수고해주신 것입니다.

2. 실천하는 사람

신부님은 말씀을 추상적으로만 붙들고 산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위해 치열하게 현실에 맞서면서 살았던 분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성자가 수도원 골방에서 기도하는 동안 깡패들이 세상을 휘젓고 다니는 것을 절대 좌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신부님은 경제적인 불평등과 부조리의 시발점인 토지문제라는 점을 간파하시고 일찍부터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레위기 25장의 토지법을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셨습니다. 또한, 신부님은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낙

태문제에 대해서도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신부님은 교회가 낙태문제에 대해 침묵하고 있거나 심각하게 가르치고 있지 않은 현실을 개탄하면서 낙태로 죽어간 어린 생명을 애도하는 마음으로 한평생 삼베조각을 앞가슴에 달고 다니셨습니다.

신부님은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사회문제에 별로 관심이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한국 찬송가의 문제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의 찬송가를 보면 사회에 관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아마 한두 곡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한국 교회가 사회에 관심이 별로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시편에서 다루고 있는 주제는 정부와 사회, 가난한 자, 사회적 갈등, 전쟁과 같은 실제 문제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의 찬송가에는 단지 천국에 관한 것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신부님은 말만 앞세우는 분이 아니라 행동하는 분이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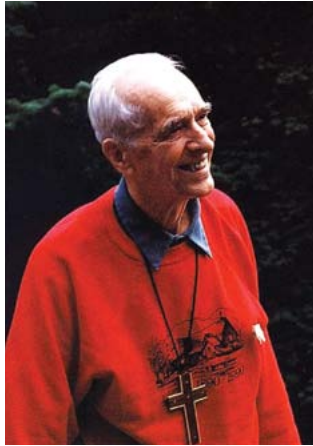
3. 신학적 포용의 사람

신부님은 신학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폭넓은 영역에서 사셨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폭의 배경에는 신부님의 교단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원래 신부님은 장로교 배경의 가정에서 자랐으나 선교에 대한 관점의 차이 때문에 과감하게 장로교를 떠나 성공회 사제가 되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종교개혁과 마찬가지로 성공회의 시발점인 영국의 종교개혁도 정치 상황과 신학 운동이 결합하여 일어났습니다. 신학적으로 볼 때 성공회 내부에서는 처음에는 루터의 사상이, 나중에는 칼빈의 사상을 따르는 청교도의 세력이 강했습니다. 19세기 중엽부터 성공회는 세계 성공회의 일치는 물론 다른 개신교단들, 로마 가톨릭 교회, 정교회 등 다른 교단들과의 교제와 일치에 앞장섰습니다. 이런 성공회의 신학적 포용성으로 신부님은 개신교의 여러 교단은 말할 것도 없고 가톨릭이나 동방 정교회 신자들까지 형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예수원에는 꽤 많은 가톨릭 신자들이 방문했습니다. 이러한 신부님의 태도는 자신과 입장이 조금만 다르면 이단 시비를 일삼는 작금 한국 교계에 시사하는 바가 큼니다.

4. 성령의 사람

신부님은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신부님은 온전한 성령운동을 제창하셨고, 이를 몸소 실천하셨습니다. 현대의 성령운동이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경향이 있었던 데 반해, 신부님의 성령운동은 성경적 토지운동을 비롯하여 낙태반대운동, 환경운동, 빈곤퇴치운동 등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과 기도가 부족하고, 성령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사회적 관심이 부족한데 신부님은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묶으신 분입니다. 신부님은 “우리 시대의 유일한 희망은 기도와 성령”이라고 주장하며 기도와 성령 안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신앙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부님은 의식적으로 진정한 성령운동과 사회정의를 위한 노력은 분리될 수 없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잠시라도 예수원에 있어본 적이 있는 사람은 제가 성령에 관해서 관심이 있는 것만큼 사회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실 성령을 구하는 주요 이유 중 하나는 우리가 국가와 사회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얻기 위함입니다.” 신부님은 “사회복음”(Social Gospel)과 “순복음”(Full Gospel)이 협력하기만 했다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교운동이 일어났을 것이고, 성경에서 말하는 공의가 지구를 휩쓸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부님이 지향하신 “사회복음”과 “순복음”의 결합, 어쩌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 세계관 운동이 지향하는바 온전한 복음이 아닐까요!





5. 진리와 사랑의 사람

신부님은 사랑과 진리가 공존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대 신부님은 교회 지도자들의 탐욕과 타락을 준엄하게 책망했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을 비판하게 되면 예수원이 물질적으로 어려워지 않을까 싶었지만 대

신부님은 주저하지 않았습니 다. 제가 오랫동안 신부님이 교회 지도자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았지만, 여기에는 두 가지 독특한 점이 있었습니다. 신부님은 지도자들의 악행과 부패를 지적하면서도 한 번도 실명을 거론하면서 개인을 공격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계 지도자들의 성적인 타락, 물질적 탐욕, 명예욕 등을 지적하면서도 특정한 개인의 실명을 언급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또한 신부님은 지도자들의 악행과 부패를 지적하면서도 한 번도 자신은 그들과 다른 존재라는 점을 부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은 흠 없는 삶을 사셨지만 부패한 지도자들을 책망할 때는 마치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처럼 아파하셨습니다. 신부님은 죄와 사람을 분리하여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는 척한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신부님은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예수님을 닮기 위해 한평생 진력하셨던 분이었습니다.

6. 연구하는 사람

신부님은 한평생 연구하는 학생으로 사셨습니다. 때로 신부님은 학문을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를 부끄럽게 할 만큼 해박하고 늘 지적 호기심이 넘쳤습니다. 신부님은 성경 연구에 많은 시간을 보내시면서도 성경만 읽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강원도 하사미 골짜기에 계시면서도 국제적인 정치, 경제, 사회, 과학,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공부를 계속하셨습니다. 언젠가 신부님은 이후 천국에 와서 자신을 찾으려거든 천국 도서관 서고에 오라는 농담을 하시기도 했습니다. 신부님은 독서에만 부지런하신 것이 아니

라 세계의 중요한 학자들과 끊임없이 교류하셨습니다. 영어가 모국어인 탓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신부님은 마르지 않은 왕성한 호기심과 탐구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강요에 의한 공부, 과도한 과외공부에 찌들어 대학을 졸업할 때에는 지적 화석과 관솔이 되어버리는 우리네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신부님은 한평생 부지런한 구도자의 자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박식하셨고, 그래서 성경과 신앙에 대해서는 물론, 가정 문제나 남녀 문제, 각종 사회적인 문제에 대해 어떤 질문을 하더라도 거의 막힘없는 대답을 하셨습니다.

신부님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 대해 관심이 있었지만, 특히 과학에 관심이 많으셨습니다. 비록 자신이 전문 과학자는 아니었지만 한평생 과학하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신부님은 늘 신학이나 신앙은 과학과 비슷하다고 하시면서 성경에서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실험해 볼 것을 권하셨습니다. 신앙적 회의를 겪는 사람들에게는 늘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는 요한복음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과감하게 실험해 보라고 도전하셨습니다.

7. 세속적 욕망에 초연한 사람

신부님은 세속적 욕망에 초연하셨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수 년 동안 저는 어느 변호사와 더불어 사단법인 예수원 이사회의 감사를 맡으면서 예수원 살림살이를 살펴볼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녀갔지만 늘 예수원의 재정상태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습니다. 때때로 신부님의 신학과 영성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누구도 그가 세속적 명예나 물질을 탐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언젠가 저는 신부님 내외분이 미국에 안식년을 가 계시는 동안 예수원을 방문했다가 예수원의 배려로 신부님 침실에서 수일간 잠을 잔 적이 있었습니다. 침대는 빼거덕거리고, 매트리스는 헐었으며, 방은 침대보다 약간 더 큰 정도로 비좁았습니다. 이런 작은 침대에서 키가 크신 신부님이 어떻게 주무셨을까? 한 평이 채 되지 않는 부엌은 제가 세상에서 본 가장 작은 부엌이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출간

한 저의 수필집 『세상에서 가장 작은 부엌』은 바로 신부님의 부엌이었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좁고 불편한 방에서 한평생을 사셨는지... 그리고 이렇게 작은 부엌에서 어떻게 그렇게 많은 손님을 대접하셨는지...

8. 솔직하고 겸손한 사람

마지막으로 신부님은 솔직하고 겸손한 분이었습니다. 언젠가 예수원 저녁 기도시간에 신부님은 예수원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고도 떠난 후에 예수원을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섭섭한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그들을 미워한 자신의 죄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런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도록 예수원 식구들과 수련생들에게 안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신부님은 자신이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는 예수원 식구들이나 수련생들에게조차 용서를 구하는 데 조금도 인색하지 않았습니 다. 누가 지적하든 말든 아들딸과 같은 수련생들 앞에도 주저 없이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비는 신부님의 겸손이 오늘의 예수원을 있게 한 것입니다!

솔직하고 겸손한 신부님의 모습은 권위주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존경받는 가문의 선교사로서, 예수원 창립자로서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으면서도 신부님은 늘 어린아이의 순진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신부님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눴본 사람이라면 이렇게 훌륭하면서도 문턱이 낮은 분이 계시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신부님의 깨끗한 삶이나 해박한 지식, 깊은 영성 때문에 주눅이 들지 않았습니다. 마음씨 좋은 이웃 할아버지 같은 신부님을 보면 누가 뭐라지 않아도 자신의 삶을 모두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신부님의 솔직하고 겸손한 모습은 예수원 식구들은 물론 방문객들의 마음을 열어젖히고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방아쇠였습니다.



대전덕 신부와 현재인 사모

이제 신부님을 생각하면서 두서없이 쓴 글을 뺏어야겠습니다. 글을 쓰면서 지난 며칠 동안 신부님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올해는 신부님이 떠나신 지 10주기인 해이고, 지난 4월 6일에는 영원히 꽃다운 청춘으로 남아계실 듯했던 현재인 사모님마저 신부님 곁으로 가셨습니다. 육신은 가셨지만,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생생하게 살아계시는 신부님과 사모님! 지금이라도 예수원에 가면 큰 웃음으로 맞아주시길 같은데 이제 두 분은 천국에 가거나 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두 분은 가셨지만 두 분의 모습은 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살아계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름같이 우리를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가운데 계신 두 분을 생각하며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오늘도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계속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양승훈 VIEW(벡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 원장. 경북대 물리교육과, KAIST 물리학과에서 한반도 물성을 연구했으며(MS, Ph.D.) 경북대학교 물리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미국 위스콘신대학에서 과학사(MA)를, 휘튼대학에서 신학(MA)를 공부했으며, 반도체 물리학 연구에 창조론, 기독교세계관 등에 관심을 갖고 있다. 저서로는 「물리학과 역사」, 「과학사와 과학교육」, 「창조론 대강좌」, 「기독교적 세계관」, 「창조와 진화」, 「헌신과 광기」 등이 있다.

50번째 생일을 준비하고 있는 예수원을 소개합니다

한국 땅에 예수원을 설립하신 대천덕 신부님께서 돌아가신 지 10년이 지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천덕 신부님을 통하여 이 땅에 많은 영적 유산을 남겨 주셨고 그 일들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에 의해 대천덕 신부님 가족과 성미가엘신학원 학생들, 그리고 향동교회 신자들과 건축노동자로서 함께 일하던 형제·자매들에 의해 1965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강원도 산골짜기에 예수원 공동체를 세우게 된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노동과 기도의 삶을 영위하며, 기도의 실제적인 능력을 시험해 보는 실험실을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이곳은 개인과 가정 공동체의 훈련의 장인 동시에 한국 및 한국교회의 쇄신과 세계 평화 그리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집입니다.

둘째, '신자생활의 세 가지 실험'을 위한 것으로, 이 세 가지는 ① 하나님과 개인의 인격적인 관계, ②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 신자 상호 간의 관계, ③ 기독교 공동체와 비기독교적 사회와의 관계를 실험하고 검증하며 연구해 보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실험은 '기도와 '코이노니아'와 '선교'의 세 영역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이들은 각각 광범위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어 서로 어느 정도 겹칠 수도 있습니다.

셋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에 의해 분명해지고 있는 것들로, 세 가지 실험에서 파생되는 사역들 즉, 훈련소(訓練所), 연구소(研究所), 파송소(派送所), 부당소(

負擔所), 보급소(補給所), 발력소(發力所)의 역할을 감당하는 일입니다.

넷째, 이곳에서 배우는 모든 실제적인 경험을 지역 사회와 나누길 원하며 이곳에서 깨달은 영적 체험을 교회와 나누길 원합니다.

한 세대를 보내고 대천덕 신부님의 아들인 벤 토레이 신부님이 그 사역을 이어가시며 다음 세대를 맞이한 지금, 예수원은 북한이 열리기를 기도하며 통일을 준비하는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북한 사역

깜깜한 어둠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그 중의 많은 사람이 집을 떠나 멀리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헤어져 이산가족으로 외국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한 때는 동방의 예루살렘

이라고 불렸던, 그러나 지금은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지 않은 독재자의 잔인한 통치 아래 소진하고 있는 도시가 있습니다. 포로의 시기가 끝나가고 있고 구원의 날이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실 것입니다. 열방이 큰일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땅은 북한 땅이며, 그 도시는 수도인 평양입니다.

북한을 향한 문이 열리는 날이 오고 있고, 화평의 복음의 신을 신은 자들이 그곳의 굶주린 백성에게 기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그 땅과 민족, 언어, 문화, 역사를 깊이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뿐 아니라, 사회를 재건하고 법령을 제정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경제원칙을 세우고, 영·혼·육을 치료하며, 화해와 용서의 도구가 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말하는 것이 필요한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강의 근원이 되고 세계가 모이는 곳, 삼수령의 목적은 남북한을 포함한 열방과 땅끝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몸에 속한 지체들이 연구와 훈련, 노동과 기도 및 공동생활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도록 준비시키는 거점이자 연구 및 훈련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청소년 사업

오늘의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이며 내일의 지도자입니다. 남한에는 양질의 교육을 받은 똑똑한 청소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문제에 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별로 관심도 없으며 북한의 형제·자매들보다는 첨단 기기(핸드폰, mp3)와 오락(영화, 게임)에 관심이 있습니다. 삼수령 청소년수련원과 네 번째 강 계획은 청소년들에게 타인에 대한 책임의식과 연대감을 일깨우고 통일 한국에서 청소년들이 감당해야 할 부분에 대한 기대감을 심어주기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남한 내의 새터민들과 조선족들

수천 명의 조선족과 기근과 고난으로부터 탈출한 새터민들은 남한을 힘과 번영의 나라, 복지국가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남한을 세계에서 앞서 가는 나라로 자랑스럽게 여기며 남한이 자신들에게 부를 가져다줄 것이라는 희망에 차 있습니다. 하지만 남한에 온 그들은 풍요 속에서 오히려 고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새터민과 조선족들은 이곳에서 착취당하고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여기서 당한 일을 들은 사람들은 남한에 오는 것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새터민과 조선족에게 다가가 함께 삶을 나누고, 그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고 우리가 그들과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바로 통일 한국을 준비하고 이끌어 갈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분단에서 통일로 가는 변환기

남북한 통일이 된다 하더라도, 사회통합에서 오는 제반 문제들과 세계관, 근본 가치관, 문화 및 언어 등의 차이에서 오는 엄청난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일이 통일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배운 바와 같이, 이런 문제들은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인 바로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 사회의 치유와 진정한 연합을 이루는 일은 급히 서둘러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이뤄가야 할 과업입니다. 네 번째 강 계획은 바로 이 일을 위한 것입니다. 삼수령센터 사업은 한민족이 통일 한국으로 가는 길을 최대한 순탄하게 그리고 건강하게, 즐겁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줄 것입니다. 이곳에서 북한 사람, 남한 사람, 외국인 모두가 함께 새로운 한국을 세우기 위해 협력할 것입니다. 새로운 한국은 부유하고 건강한 세계의 리더가 되고, 무엇보다도 체제상으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일치된 나라가 될 것입니다.



벤 토레이의 편지

남한 사람들은 북한과의 통일을 간절히 염원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의 정체성은 언제 어디서나 분명히 드러납니다. 개개의 한국인은 서로 다르겠지만, 국가적으로는 세계에서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단일민족입니다. 하지만 북한과 남한은 물리적인 장벽뿐만 아니라 60여 년의 분단 세월에 의해 나누어져 있습니다. 한국 정부와 재계에서 안보와 경제 및 정치적인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통일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그러나 진

정한 연합을 방해하는 또 다른 차원의 사회적, 문화적 그리고 영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삼수령센터의 네 번째 강 계획은 이러한 사회적, 문화적 영적인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 일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이루고 배운 모든 교훈이 이 일에 함께하려는 모든 이들에게도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놀라운 일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Worldview Special

결혼 또는 결혼문화에 대해 생각하다

사랑만으로 행복하고 충분해야 할 결혼이다.

그런데 사랑만으로는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고, 초라해도 너무 초라해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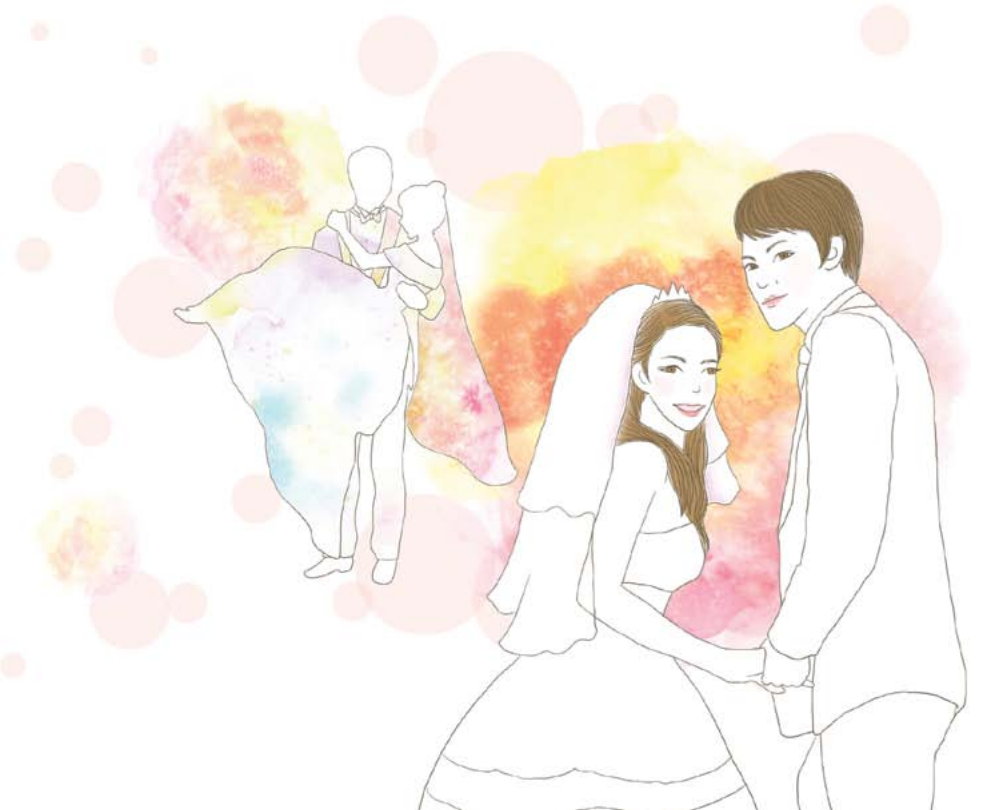
왜? 무엇 때문에?

궁색한 변명은 이제 그만

성경은 '결혼'에 대해 무어라 말하고 있을까?

무엇부터 바꾸고, 무엇부터 버려야 할까?

결혼에 대해 질문해 본다.



진짜 결혼을 하라

☞ 박수웅 장로 ("우리...사랑할까요?,"저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가치관이 매우 혼돈된 타락의 시대이다. 특히 가정의 타락은 심각하다. 이혼율은 나날이 급증하고 있다. 청년 중 많은 이들이 나이가 차도 실업 상태다. 결혼이 늦어지고 있다. 가정을 꾸리려는 청년 방향하고 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질까?



지혜가 필요한 시대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가정을 만드신 것이다. 그런데 가정에 교묘하게 사단이 파고들었다. 가정을 파괴한 주범은 사단이다. 에덴동산에서부터 파괴된 가정은 그 이후 모든 인류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단은 모든 공동체의 기본이고 기초인 가정을 파괴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침범하고 있다.

이에 그리스도인은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할까? 마태복음 10장 16절은 예수님께서 이 시대를 향하여 선포하신 말씀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교회는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는 열심히 가르치고 있다. 그러나 ‘뱀처럼 지혜로우라’라는 말에는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모르고 있다. 아직은 순결하지만 지혜롭지 못해 점차 세상과 동화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을 금할 수 없는 시대다.

특히 결혼문화를 볼 때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교회 내에 수많은 노처녀, 노총각이 넘쳐나고 있다. 교회는 이들을 잘 인도하여 결혼시켜야 할 사명이 있는데 이들을 잘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 ‘네 소견대로 하라’는 식으로 내버려두고 있다. 이들을 짝 지어주고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주어야 할 사명이 교회에 있다.

혼수냐? 결혼이냐?

청년에게 왜 결혼 못하냐고 물으면, 대개 결혼비용을 마련하지 못하여 엄두도 못 내고 있다고 대답한다. 결혼비용이 거의 천문학적 숫자인 시대에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청년이 어떻게 스스로 결혼비용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혼수도 장난이 아니다. 결혼비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혼수. 완전히 타락한 세상이요, 이단적인 생각이다. 나에게 세 자녀가 있다. 모두 다 결혼했다. 아이들이 결혼할 때, 사위에게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통보했다. 혼수는 준비하지 말라고, 양말 한 짝, 넥타이 하나도 가지고 오지 말라고. 그리고 우리도 함이나 다른 것을 준비하지 않겠다고 통보했더니 쌍수를 들고 환영하며 기뻐했다. 그리고 시집가는 아들들과 딸에게 각각 만 불(약 천만 원)을 주고 신혼여행과 반지 등 필요한 것들을 준비하라고 했다. 세 자녀 모두 이에 순종했다. 양가도 모두 기뻐했다. 특히 며느리 집안에서 기뻐했다. 어느 집안에서 결혼하며 식억이 오고 갔다고 했다. 식억은 백만 달러다. 백만 달러가 오가는 결혼이 과연 정상일까? 결혼에 혼수를 운운하는 것은 이단이다. 결코 성경적이지 못하다.

결혼의 목적(?)

이 땅의 모든 부모에게 질문한다. 자녀를 결혼시키는 목적이 무엇인가? 솔직하게 답해 보라. 자녀를 행복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다. 혼수 등으로 싸우고 갈등하지 않도록 보호하며 축복해주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자 역할이다. 부모는 인신매매범이 아니다. 어찌하여 자녀를 결혼시키면서 한탕(?) 해 먹으려고 하는가? 부모는 자녀의 행복을 원하는 것인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고 자녀를 팔아먹는 것인가. 사람을 돈으로 사는 것은 말 그대로 인신매매범과 다를 바가 없다. 호텔의 비싼 예식장도 필요 없다. 교회에서 예식을 하고, 자녀가 감사 헌금하도록 했다. 그리고 나는 모든 결혼식에 들어온 사례비를 전부 자녀에게 주었다. 한 푼도 횡령(?)해서는 안 된다.

집이 없어 결혼하지 못한다(?)

돈이 없어 결혼하지 못한다는 청년들이 갖는 다음 문제는 바로 집이다. 집은 어찌해야 하는가. 결혼을 위해 큰 아파트나 좋은 집을 마련하려 한다. 그러려면 돈이 많이 든다. 직장생활을 갓 시작한 자녀가 어떻게 어찌 좋은 집을 마련할 수 있을까? 청년들은 집을 구하기 위해 오히려 결혼을 미룬다. 청년들이 “집을 어떻게 하나요?”라고 질문하면 나는 이렇게 대답한다. “자네, 지금 어디서 자고, 어디서 생활하는가?” 청년들은 대개 집이 있어야 결혼을 한다고 생각한다. 결혼은 집이 문제가 아니다. 지금 사는 집, 방이 있으면 된다. 사는 방도 있고, 먹을 것도 있는데 뭐하러 다른 곳에서 준비하는가? 처음 결혼의 시작은 시댁이나 처가의 사용하던 방을 사용하고, 점점 돈을 벌어 재정적 자립이 가능하면 조그마한 방을 얻어 새로운 살림을 차리면 된다. 밑바닥에서 출발하면 평생 밑질 것이 없다. 빚을 지는 일이 허다한 이 시대에 가정의 시작부터 밑바닥에서 출발하면 계속 성장만 있을 뿐이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나도 이렇게 했고, 우리 자식들도 그렇게 했다. 아들은 결혼하고 처가에서 살면서 처가 식구들과 돈독한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1년 이상 살며 장인·장모님과 가족이 된다. 그러다 아이를 낳고는 우리와 함께 살았다. 당시 작은 평수에 살고 있었지만 거실에 커튼치고 아이 낳고도 같이 살았다. 이렇게 같이 살다 보니 관계가 좋아졌다. 지금도 며느리는 시간만 되면 놀러 온다. 시집이 원수가 아닌 가족이 되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고 검소했으며 늘 남을 섬겼다. 살 집이 없어 결혼을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지금 사는 집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먼저 생각하라

우리는 결혼문화를 이야기할 때 혼수와 비용, 돈을 말하기 전에 어떻게 살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성격 차이는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 대화하는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성생활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가정의 비전은 무엇인지 등 어떻게 사는 방법을 먼저 이야기해야 한다. 이것이 진짜 혼수다. 결혼예비학교에 참석하고 결혼을 위한 훈련을 받는 것이 진짜 혼수다.

교회와 성도는 이런 정신으로 검소하고 단순하게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진짜 결혼문화를 창출해야 한다. 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서 진짜 결혼문화를 만들어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사명이 바로 우리에게 있다.



박수웅 전남대 의과대학 졸업,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인턴, 군의관 복무를 거쳐 뉴욕 Albert Einstein College of Medicine 마취과 수련의 과정, 디트로이트 Henry Ford Hospital 마취과 Staff를 거쳐 캘리포니아 Huntington Beach Hospital 마취과 의사로 개업, 지금에 이르고 있다. JAMA(Jesus Awakening Movement for All Nations, 전세계 예수 대각성 운동) International Director, KOSTA(Korean Student Abroad)감사, CCC 미주 지역 순회 강사로 사역하고 있다. 저서로는 「우리...사랑할까요?」, 「우리, 결혼했어요!」, 「우리, 엄마 아빠 됐어요!」, 「영원한 청년 박수웅의 자기 경영」 등이 있다.

바람직한 그리스도인의 결혼문화

☞ **주요섭**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대표, 은혜로운교회 담임목사)

한국 결혼문화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을 꼽으라면 체면문화와 허례의식, 조건 중시 풍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체면을 중시해온 문화다 보니 결혼에 임하는 각 가정의 모습은 남들과 비교하여 얼굴을 깎이지 않으려거나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과시하고 뽐내려는 경향이 농후합니다. 사회정의와 허례의식 타파를 명분으로 그러한 흐름에 역행이라도 할라치면 곧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거나 손가락질받기 십상입니다.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굳어진 결혼풍조를 한 개인이나 가정이 되돌리려면 지금은 물론 앞으로도 요원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조차 이러한 풍조에 아무 생각 없이 가세해 일탈을 부추기고 있으니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필자는 지난 10년 동안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올바른 배우자 선택과 건전한 가치관에 기초한 성경적 결혼문화와 가정의 행복을 위해 일해 왔지만, 여전히 비관적인 시각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관과 결혼문화가 일반인의 그것과 구별되지 않고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더 부패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는 바리새인들처럼 오늘날 한국 기독교인들의 결혼에 관한 가치관과 결혼문화는 세속적이고 비성경적인 요소가 너무 많습니다. 그 모든 것을 이 짧은 지면에서 다 거론할 순 없기에 몇 가지를 요약하여 지적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필자는 결혼 세미나를 인도할 때 “결혼문제가 대두하면 그 집안의 신앙 밀천(근본)이 다 드러납니다.”라는 말을 곧잘 합니다. 무슨 소리냐 싶겠지만, 이제껏 결혼사역현장에서 몸으로 부딪쳐온 결혼이기에 누구도 쉽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리라 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의견상 매우 착하고 모범적이고 거룩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한꺼풀 벗겨보면 그들의 내면에 이기심과 탐욕, 교만과 아집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결혼정보회사를 영리만을 목적으로 운영해본 경력자나 피상적으로 결혼시장과 결혼문화를 알고 있는 분들은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온갖 문제점과 비리들이 결혼현장에 비일비재합니다. 그 근본적 원인을 파헤쳐 들어가면 한 개인의 차원을 넘어선 사회 구조적 문제, 더 나아가 교회적 문제와 신학적 문제의 뿌리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기에 아무리 잘못된 현상만을 놓고 지적해도 근본적 변화를 기대하기가 요원할 뿐입니다. 이는 곧 기독교 세계관의 구현과 내재화에도 직결된 문제일 것입니다.

잘못된 전통에 관한 기독교적 재해석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문제는 잘못된 전통에 대한 기독교적 재해석의 문제입니다. 좋은 전통이 있는가 하면 그 반대의 경우도 많은데, 그 중의 하나가 체면과 허례의식에 의한 한국식 결혼문화입니다. 결혼은 한 집안의 대사(大事)이면서도 한 가문의 대사, 한 향리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타인과 비교가 되고 어쩔 수 없이 견주려는 유희와 충동에 휘말립니다. 그 결과 분수에 맞는 결혼식보다 남의 눈치를 보게 되고 급기야 체면을 유지하려 과소비에 치우친 결혼식을 치르곤 합니다.

결혼 당사자의 아름다운 새 출발이라는 결혼의 본질보다 화려한 결혼식이라는 껍질이 더욱 중시되고 우선시되는 아이러니. 하객은 정돈되고 숙연한 증인의 자세, 순수한 축하의 마음으로 결혼식에 참석하기보다 축의금만 내고 식당으로 곧장 가 식사에 몰입하고, 혼주들은 결혼식에 하객이 얼마나 왔으며, 축의금이 얼마나 들어왔느냐가 최대관심사가 돼버린 통속적인 결혼식 풍경을 보노라면 실소를 넘어 서글픔마저 느껴집니다.

기독교식으로 진행되는 결혼식은 잘못된 전통의 답습이 아니라 재해석 또는 재창조여야 함에도 그렇지 못하기에 안타깝습니다. 교회에서 하거나 일반 예식장에서 하든 대부분 목사를 주례로 모시려 한다는 점만 다를 뿐 나머지는 대동소이합니다. 결혼식이 단순한 혼인 잔치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엄숙한 결혼에 배라는 생각으로 결혼예식에 참석하는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요?

급증하는 이혼율 때문에 어지러운 세태에서 그리스도인 가정만이라도 견고한 요새와 같은 복된 믿음의 가정을 꾸려야 할 텐데, 첫 출발부터 어수선하고 인간적인 시각에서 출발하니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그 결과 사소한 문제로 쉽게 흔들리며 이혼을 들먹이고, 잘못된 응답을 받고서 결혼했기에 회개하고서 원점으로 돌이키면 된다고까지 생각하고, 심지어는 거짓말로 상대방을 속이고서 결혼하는 사례까지 발생합니다. 이럴 때 가정의 기초가 흔들리고 뿌리가 뽑힘은 자명합니다.

세속적 시각에서 배우자 선택

두 번째로 눈여겨보아야 할 문제는 세속적 시각에서의 배우자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정 거둬나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들의 생활도 마땅히 그에 맞는 행위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신앙 따로 삶 따로 식의 교회생활과 실생활을 구별 짓는 이원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한국교회의 몰락화 및 세속화에 따라 성공주의 및 당대주의에 길든 탓이겠지요. 하늘에서도 축복받고 땅에서도 번영과 자손만대의 물질형통의 복을 누리고야 말겠다는 기복신앙에 세뇌된 탓에,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 땅에서의 성공과 영화에 혈안이 돼 있습니다. '회개의 천국 복음'을 전파하려 강림하신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값싼 '사이비 지상 물질 복음'으로 변질시키고 모독한 탓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엉망이 되었고, '거룩한 씨'를 대대로 이어야 할 교회의 결혼문화는 말할 것도 없이 속되고 부패해 버렸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가정에서 자녀를 결혼시키려거나 미혼 그리스도인 스스로 배우자를 선택할 때 우선 순위는 무엇일까요? 흔히 교회 내에서 회자되는 믿음과 성품, 신실한 됴됨이일까요? 아니면 겉모양 그럴싸한 스펙과 외모일까요?

하나님은 외모보다 중심을 보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지만(삼상 16:7), 우리는 여전히 외모에 치우쳐서 사람을 고르려는 충동에 휩싸여 결국 그릇된 선택을 하곤 합니다. 다윗조차 그 당시 왕의 기준으로는 부적합한 작은 키(사울과 비교하여)에 무명의 목동에 불과한 인물이었다는 사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미혼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사람의 겉모양에 치우쳐 배우자를 선택하려는 경향을 보여 안타깝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신앙만을 고려하라는 뜻도 아니고 미적 아름다움을 추구하도록 지음 받은 인간의 본성을 도외시하라는 뜻도 아닙니다. 다만 그 본질이 의심스럽고 정도가 심하다는 뜻입니다.

필자가 지금까지 수많은 미혼 청년들과 결혼에 실패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 상담해본 결과, 신앙의 기초가 전혀 세워지지 않거나 거둬나지 못하거나 그들 내면에 도사린 탐욕과 이기심, 기도와 봉사와 헌신에 대한 보상심리가 신념처럼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탐심은 우상숭배'(골 3:5)라고 성경이 분명히 경고하고 있음에도 탐심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오히려 맹목적인 열성과 기도의 보상으로 이 세상 누구보다도 더 풍성하고 넘치는 이 땅의 물질적 형통의 복을 갈망합니다. 그래서 내 배우자는 그 누구보다도 화려하고 번듯하며 남들에게 보여줘도 전혀 뒤지지 않고 당당한 인물을 선호하게 됩니다. 미혼 그리스도인의 속마음은 비신자의 그것보다도 더욱 간절하며, 교회에 나가는 궁극적 목적이기도 합니다.

결혼생활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큰 이유는 첫 단추를 잘못 끼운 탓이지만, 평생을 함께 살아갈 배우자를 선택하는 중차대한 문제 앞에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성급히 오직 드러난 외적 조건에만 현혹돼 경솔히 결정합니다. 그렇게 '시장가치'를 우선하다 보니 '인격가치'나 '사람 됴됨이'를 소홀히 하게 되고, 그 결과 화려한 포장지를 뜯고 내용물을 확인한 후 '속았다'는 생각에 물건을 반품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백화점 명품 쇼핑 같은 허영심에 기인한 결혼은 인생 전체의 비극을 가져올 위험성이 크기에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포스트모더니즘의 악영향과 잘못된 독신 은사

세 번째로 눈여겨보아야 할 문제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악영향과 잘못된 독신 은사의 문제입니다. 포스트모던 문화의 악영향으로 전통적 가치관이 급속히 붕괴되고, 쾌락주의가 만연하며 종교다원주의와 윤리적 상대주의가 횡행하고 있으며, 결혼문화도 크게 변질·왜곡되었습니다. 일부일처제도와 남녀의 결혼, 부부간의 순결과 정조관념 등이 과거와 비교하면 현저히 약화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가정이 흔들리고, 그 결과 또다시 흔들리는 가정이 잉태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실정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기초한 건강하고 안정적이며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야 하겠지만, 오늘날 한국교회는 이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터무니없는 남녀성비의 교회마다 결혼 못한 노처녀문제로 중병을 앓고 있습니다. 그나마 교회 내 노총각들도 고학력으로 기대감만 높아진 자매들로부터 외면을 당하는 실정이라 답답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교회는 이러한 문제점을 직시하고 성경적 결혼문화를 확립하고 전파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합니다. 또한 결혼문제로 고통받는 미혼 그리스도인을 위해 남자 청년들을 전도해오는 일에 진력해야 합니다. 독신 은사자와 결혼 은사자가 분명히 구별됨에도(고전 7:7), 상당수의 목회자와 제직들이 청년들에게 무조건 교회에서 봉사하면 결혼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해주시는 사탕발림(?)으로 기만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결혼 적기를 놓쳐 땅을 치고 후회하며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로 수평 이동하는가 하면, 심지어 불신자와의 결혼으로 교회를 떠나기까지 하는 이 비극적 현실을 언제까지 내버려둘 것인지 탄식이 절로 나옵니다.

결혼에 관심을 두는 걸 마치 속되고 믿음 없는 일이며, 하나님께 헌신하는 데에 방해되는 걸림돌인양 성도를 기만하는 목회자나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그분들조차 독신 은사자가 아님에도 쉽게 미혼자들에게 평생 독신으로의 헌신을 강요하거나, 교회 내에서 충성·봉사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멋진 배우자를 선물로 주신다고 가르쳐선 안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선 골방에서 은밀히 기도해야겠지만,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선 그 다음 단계로 이행해 열심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노력을 병행해야 함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러한 개인의 노력과 교회의 지원 없이 하늘에서 푹 떨어지는 배우자를 기대하도록 부추긴다면 훗날 그들에게 두고두고 원망을 들을지도 모릅니다.

아무쪼록 온갖 폐해를 일으키는 잘못된 한국 결혼문화를 바로잡고 선도하는 기독교 결혼문화가 속히 자리를 잡기 바라며, 사회의 기초 구성단위이자 교회의 축뎛들인 신실한 믿음의 가정들이 더욱 새롭게 풍성히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주요섭 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와 헛볼트리니티신학대학원대학교(M.Div)를 졸업하였다. 월간『한국시』(1995)로 등단. 신인상을 수상하였으며, 장편소설『사학년 오학기』(1990)로 등단. 현재 한국문인협회 회원이자 한국크리스천문학가협회 이사이다. 헤세드결혼문화선교회 대표(www.hesedwem.net)이자, 은혜로운교회 담임목사이다. 저서로는 「그래도 난 멋진 결혼을 꿈꾼다」, 장편소설 『한국환상곡』 등이 있다.



예비시장학교를 통한 결혼문화의 회복

☞ **함승애** (전인교육연구소 소장)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을 살펴보면, 모든 삶의 속도가 매우 빠르게 흘러가고 있음을 느끼곤 한다. 모두 어디를 향해 그토록 바빠 달리는지 생각해 볼 겨를조차 없이 옆 사람이 달리니까 뒤쳐지지 않으려고 함께 달리게 되는 것이 현실인 것 같다. 안타깝게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닌 듯싶다.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영향력을 주기보다는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일도 많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선한 영향력을 받아야 하지만, 실제의 삶 속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모순덩어리라고 비난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은 결혼문화에서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결혼문화가 세속적인 결혼문화와 달라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하지만 현실에서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결혼문화는 어떠한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혼 당사자나 그들의 부모들도 마찬가지이다.

세계관의 부재

실제로 주변에서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결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들을 자주 본다. 배우자 선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신앙 안에서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을 준비하는 가운데 혼수 문제로 결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이 보았다. 신앙생활 잘하면서 믿음으로 산다고 말하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결혼을 앞두고서는 믿음은 따로 출장 보내고 세속적인 기준이 모든 결정의 잣대가 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런 모순된 결혼문화는 삶의 기본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는 기독교 세계관의 부재가 원인이라고 본다.

헝크 헤르세마(Henk Geertsema)는 기독교 세계관을 이야기하면서 다음 두 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하나는 관계적인 측면으로 우리가 단순히 사물을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어떠한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시각이라는 점이다. 즉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에게 반응함으로써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안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자신에 대한 존재감이 다른 것과 비교함으로써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다른 하나는 현실 가운데서 창조주의 관점을 갖는 것이다. 다시 말해 현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할 때에만 자신과 세계에 대한 바른 의미와 관점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이 두 가지, 즉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과 예수님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됨의 관계성을 인식한다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낼 수 있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차별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본다.



예비시장학교

세속적인 결혼문화를 극복하고자 노력하는 차별화된 그리스도인 결혼문화 한 가지를 소개하고 싶다. 다소 생소한 단어일 수도 있겠지만, 작년에 시도한 바 있는 예비시장학교다. 이 학교는 그리스도인 결혼문화를 세워나가기 위해 결혼 적령기의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예비시장은 예비 시아버지, 시어머니, 예비 장인, 장모의 첫 자리를 따서 만든 용어이다. 이 학교를 통해 이루어지는 우선적 교육은 기독교세계관 교육이다.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해 우선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성과 하나님의 주권 인정이다. 그것은 가정을 최초로 설계하고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며 이 가정을 이끌어 나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다. 결혼할 배필을 만나는 과정부터 시작하여 새 가정을 세워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 나갈 수 있도록 훈련하는 곳이 가정이다.

세속적 만남은 광고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조건에 따른 만남이다. 좀 더 좋은 조건과 환경에 따라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조건이 변할 때는 머뭇거리 없이 사랑이 깨어지고 결혼도 파국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오늘날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예비시장학교는 다른 관점을 추구한다. 자녀의 배우자 선택에 있어서 세속적 조건(나이, 배경, 학벌, 재산, 가문 등)보다는 하나님의 인도를 우선한다. 자녀 역시 결혼예비학교를 통해 같은 맥락의 교육을 받는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 주라는 사실과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아서 아담을 위해 하와를 만드시고 친히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최초의 중매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 그리고 지속적인 기도과 말씀의 인도를 받아 세속적인 가치 기준이 아닌 믿음의 비전을 따라 배필을 구하게 된다.



최고의 혼수를 선택한 사람들

실제 예비시장학교를 마치고 나서 자녀를 출가시킨 분들이 많이 있다. 그 가운데 한 사례를 들면 혼수의 문제가 걸림돌이 되는 상황에서 시부모님이 한 가지 제안을 한 경우가 있다. 혼수를 해오는 대신 주일마다 부모와 함께 같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자는 것이었다. 이 가정의 경우 최소한의 살림살이만 장만해서 신혼살림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주일마다 부모와 함께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행복한 신혼생활을 잘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 신앙이 전수 되도록 명령하셨다(신 6:4-9). 믿음의 가정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생활 속에 어떤 의미인지를 믿음의 부모들을 통해 가르치도록 말씀하셨다. 이 가정은 주일마다 부모와 자녀가 함께 모여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함께 식사하면서 세대 간의 갈등 없이 소통이 잘 되어 주변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예단에 관한 부담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예단을 해오는 대신 결혼한 다음에 부부가 함께 성실하게 교회 봉사를 하라는 것이었다. 이 제안 역시 신부에게 기쁨으로 받아들여져서 결혼 후에 열심히 부부가 함께 교회 봉사를 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정을 세워나가고 있다.

결혼은 언약이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남녀 사이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점에서 의무적인 성격을 띤 소명이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결혼 자체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고귀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거하는 가정은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훼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심과 같이 하면서 서로 사랑해야 한다(엡 4:31-32).

주후 1세기 기독교인들이 비기독교인들의 세계에 미친 가장 큰 영향력은 다름 아닌 서로를 향한 '사랑'의 모습이였다. 이 사랑은 기분에 따라 변하는 사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이다(요일 4:20). 결혼을 통해 조화로운 가정생활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에 부은바 된 하나님의 사랑이다(롬 5:5). 오직 이 사랑이 정서적 안정감을 갖게 하며 모든 악의 세력들을 방어하는 안전장치이다.

떠남과 연합

예비시장학교에서 강조하는 또 하나는 고부갈등과 장서갈등의 원천적 예방 원리이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갈등은 구조상 존재할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것조차도 삶의 나침판 역할을 하는 기독교 세계관의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결혼이 하나님의 가정을 세워나가기 위한 절차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손에 대해 준비해야 한다. 인격형성이 이루어지는 최초의 중요한 교육의 장이 가정이며 그 시작은 모태에서부터 비롯된다. 손자·손녀를 싫어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어디 있겠는가? 손자·손녀를 사랑한다면 그 귀여운 손자·손녀를 잉태하고 양육하는 며느리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왜냐하면 자녀가 성장하는 동안 가장 많은 영향력이 어머니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예비시장학교에서는 결혼과 가정의 중요한 양상이 '떠남'과 '연합'이라는 사실이다. 이것은 적절하게 떠날 때만이 책임 있게 연합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 남편과 아내는 두 개의 개체가 아니라 한 몸이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르다(창 2:24)." 이는 부모를 떠나 온전한 친밀성과 깊은 연합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의도라는 사실이다. 실제 결혼생활에서 부모로부터 떠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합하지 못하는 젊은 커플들이 많다. 과거에는 부모 쪽에서 떠나보내지 못해 자녀세대가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많았지만, 현재는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못해 부모로부터 떠남이 이루어지지 않거나 지나친 과잉보호로 인해 결혼한 이후에도 마마보이나 마마걸이 돼서 떠남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비시장학교는 이와같이 결혼 적령기에 있는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결혼을 둘러싸고 있는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시작되었다. 세속적인 결혼문화에 반해 기독교 세계관으로 무장하여 차별화된 기독교 스타일의 결혼문화를 세워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리스도인 가정은 자녀를 잉태할 때부터 결혼 시킬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양육해야 하는 사명이 있다. 기독교 가정의 본질적 역할이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헌신과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위한 통로가 되는 것이라면, 모든 그리스도인 가정은 세상에서 '제자의 직분'을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결혼문화에도 기독교적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한다.



함승애 서울대학교(B.A.)를 거쳐 고신대학교 대학원 기독교교육학과(M.A, Ph. D.)에서 상등을 전공하였다. 동삼교회 교육전담 전도사로 10년간 섬겼으며, 현재 동삼가족상담실 상담실장, 여의도순복음 성북교회 전인교육연구소 소장, 심리상담 전문가, 진로상담 전문가, 가족상담 전문가이자 고신대학교 교수이다. 무엇보다 매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길 소망하는 사람이다.

성경적 세계관을 학문에 적용한 결과와 고민을 나누는 시간

제29회 기독교학문학회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STUDIES

일시 2012년 11월 10일(토) 10:00-18:00

장소 명지대학교 서울캠퍼스 방목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 / 경상관

주제강연 SNS & CNS
(크리스천의 SNS)

주제발표자 강진구 교수 / 고신대학교
김용찬 교수 / 연세대학교

일정계획

| | |
|-------------|-----------|
| 9:30-10:00 | 등록 |
| 10:00-12:00 | 대학원생 논문발표 |
| 12:00-13:00 | 오찬/등록2 |
| 13:00-13:30 | 개회/ 시상식 |
| 13:30-15:00 | 주제강연 및 논평 |
| 15:00-18:00 | 분과별 발표회 |
| 18:00-19:00 | 만찬 |

* 상기 세부일정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과분야: 철학, 경영/경제, 문화/예술, 정치/외교, 교육, 법학, 역사, 상담/심리, 문학, 의학, 사회복지, 기독교세계관 등

* 제출처 gihakyun@daum.net, info@worldview.or.kr

* 홈페이지 www.worldview.or.kr

* 문의전화 02-3272-4967 (담당 신효영 간사)

FAITH AND SCHOLARSHIP

한국연구재단 학술등재지
<신앙과 학문>
논문 투고를 받습니다

“상시투고입니다”

2012 발행 일정 17권 4호 12월 31일 발행

기독교학문연구회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다양한 분야에서 신학과 학제간의 연구를 진행하시는 많은 분들의 논문 투고를 받습니다. 교수님들의 논문부터 선교사님들의 해외 논문, 교수-학생 공동논문, 주일학교 사역자-청년 공동논문 등 신앙과 학문을 통합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의 투고규정을 참고, 사무국으로 문의 바랍니다.

* 문의전화 02-3272-4967

* 편집위 faith.scholarship@gmail.com



보내는 사람

주소

이름

연락처

□□□□-□□□□

제40335호
발송유효기간
2012.5.1~2014.4.30
용산우체국

받는 사람

서울시 용산구 이촌2동 212-4 한강르네상스빌 A동 402호
전화 02-754-8004 팩스 0303-0272-4967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 월드뷰 담당자 앞

□□□□-□□□□

CMS 출금이체 신청서

| | | | |
|--------|--------|--------|----------------|
| 신청인 정보 | 상호(성명) | 주민등록번호 | |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 | 이 메 일 | 출금일자 | |
| | 은 행 명 | 예 금 주 | |
| | 계좌번호 | 월납입일 | 매월 □ 25일 □ 30일 |

- 【 CMS 출금이체 약관 】**
- 위의 본인(예금주)이 납부하여야 할 요금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 없이 본인의 지정출금계좌에서 수납기관이 정한 지정 출금일(휴일인 경우 다음 영업일)에 출금대체 납부하여 주십시오.
 - 출금이체를 위하여 지정출금계좌의 예금을 출금하는 경우에는 예금약관이나 약정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금청구서나 수표 없이 출금이체 처리절차에 의하여 출금하여도 이의가 없습니다.
 - 출금이체 지정계좌의 예금잔액(자동대출약정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 포함)이 지정 출금일 현재 수납기관의 청구금액보다 부족하거나, 예금의 지급제한 또는 약정대출의 연체 등으로 대체납부가 불가능한 경우의 손해는 본인의 책임으로 하겠습니다.
 - 지정 출금일에 동일한 종류의 출금이체청구가 있는 경우의 출금 우선 순위는 해당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출금이체 신규신청에 의한 이체 개시일은 수납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결정되어 지며 수납기관으로부터 사전 통지 받은 출금일을 최초 개시일로 하겠습니다.
 - 출금이체 신청(신규, 해지)은 해당 납기일 30일 전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출금이체 신청에 의한 지정계좌에서의 출금은 수납기관의 청구대로 출금키로 하여 출금 요금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과 수납기관이 협의하여 조정키로 합니다.
 - 출금이체금액은 해당 지정출금일 은행 영업시간 내에 입금된 예금(지정출금일에 입금된 타 점권은 제외)에 한하여 출금처리 됩니다.
 - 이 약관은 신청서를 수납기관에 직접 제출하여 출금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합니다.

【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 】

본 신청과 관련하여 본인은 다음 금융거래정보(거래은행명, 계좌번호)를 출금이체를 신규 신청하는 때로부터 해지 신청할 때까지 상기 수납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긴급 재정경제명령」의 규정에 따라 동의합니다.

위 CMS 출금이체 약관 및 금융거래정보의 제공 동의서에 따라 위와 같이 출금이체거래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인 또는 서명



“월드뷰 편집부에서는 독자들의 후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월드뷰를 읽고 느낀점이나 바라는 점을 작성하셔서 보내주시면 선정되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독자 후기를 보내실 때는 이름과 전화번호, 직업, 주소를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2012. 8월)

회원후원

2천5백 박진호, **3천** 구재형, 김성권, 김창현, 윤경선, 조성진 **3천5백** 가월현, 강동훈, 김희원, 노승욱, 노주하, 백경은, 백선희, 생명의강, 영음사, 유경상, 정세열, 정호영, 진성자, 최승오, 최윤희, 한민좌, 한진영, 황보남이 **5천** 고은하, 구성덕, 구재환, 권명중, 권지연, 김원명, 김경식, 김경희, 김기웅, 김기현, 김남진, 김대용, 김미정, 김민지, 김병국, 김봉우, 김상욱, 김성민, 김성은, 김영윤, 김정영, 김정심, 김정원, 김정준, 김준, 김준희, 김철수, 김태윤, 김형아, 김혜창, 김효태, 마민호, 박광제, 박기연, 박상균, 박승룡, 박준모, 박천규, 박해일, 배기선, 배도환, 범경철, 손세용, 손영일, 송동민, 송시섭, 송철호, 신기혁, 신찬웅, 심정하, 안현상, 양영태, 우수민, 유은자, 유창은, 유충열, 유종선, 이경미, 이근배, 이길수, 이노윤, 이덕재, 이명진, 이승환, 이영홍, 이원배, 이윤희, 이민미, 이은수, 이인수, 이진영, 이한길, 이항수, 임선제, 임재영, 임준택, 임형준, 장옥경, 장현일, 전정진, 전충국, 정수빈, 조은아, 조인진, 조혜경, 주경식, 지경순, 최광수, 최동희, 최영태, 최유, 한배선, 허재일, 홍승기 **7천** 김태우 **7천5백** 고상섭, 권오현, 민수진, 이주희, 최병호 **1만** 강은정, 강효식, 고은님, 고현경, 권민규, 권성아, 권순범, 김경원, 김경희, 김고운, 김동우, 김성경, 김성상, 김성인, 김세령, 김세원, 김세중, 김영욱, 김영화, 김요한, 김원, 김은덕, 김은수, 김은혜, 김정일, 김정호, 김종국, 김종훈, 김진아, 김창현, 김홍섭, 김효호, 나동훈, 남서희, 류화원, 박강국, 박대원, 박두한, 박시윤, 박영주, 박유진, 박정욱, 박종원, 박종훈, 박진규, 박창우, 박해경, 서화진, 소종화, 손현탁, 송미정, 송종철, 신상형, 신성자, 신성혜, 신현주, 신호기, 안석, 안용준, 양병국, 양성만, 양성일, 양행모, 양혜원, 오지순, 원호영, 유건호, 유영준, 유지황, 유해무, 윤동수, 윤상현, 이경숙, 이관후, 이규현, 이길형, 이명동, 이명수, 이명수, 이명현, 이문원, 이민화, 이상수, 이상수, 이승엽, 이시영, 이신영, 이언구, 이윤석, 이윤재, 이윤정, 이은자, 이은주, 이정기, 이정길, 이종국, 이지연, 이한길, 이해리, 이화섭, 임일택, 임지연, 임지연, 장승재, 장인숙, 장태준, 전명희, 전성규, 전태수, 정상록, 정은희, 정성숙, 정현주, 제양규, 조백형, 조용현, 주성철, 차정규, 최삼열, 최성두, 최영찬, 최용준, 최진우, 최진호, 최현빈, 추진연, 한인관, 한정호, 한혜실, 한화진, 하찬영, 허현, 현승건, 홍선호, 홍철의, 황세환, 황태연, 황혜정, **1만5천** 김선화, 김승택, 김효순, 정상섭, 최동원 **2만** 강대훈, 김옥태, 김용식, 김인숙, 김정호, 노용환, 박영혜, 박한, 배성민, 배은경, 변우진, 우시정, 이대환, 이명희, 이현정, 전광학 **3만** 김동원, 김봉룡, 김성범, 김승남, 박문식, 박상진, 박신현, 박연호, 서성록, 오의석, 우병훈, 이근호, 이대회, 이은실, 이창국, 임하옥, 장수영, 전요섭, 정동섭, 정은애, 조무성, 주태화, 황의서, 황정진 **5만** 김민철, 김성락, 김시호, 서진희, 송인규, 신국원, 윤석찬, 정희영, 조성대, 채기현, 한윤식, 현은자 **6만** 강진규, 김미경, **10만** 김원수, 김익원, 김태황, 박상은, 손봉호, 전광식, 한정화 **20만** 김승태, 최태연 **30만** 김건주, 김승욱, 목화빌딩 **1백만** 조성표 **1백5만** 최현일

기관후원

7천5백 영암교회 **5만** 개명교회 **2만** 빛과소금교회 **3만** 두레교회 **5만** 개봉교회 다운교회, 새언약교회, 성덕중앙교회, 예심교회, 중앙대학교회 안성캠퍼스 **10만** 군산성광교회, 남서울은혜교회, 명성교회, 산정현교회, 상록회계법인, 새로나교회, 서울영동교회, 성덕교회, 신석교회, 언약교회, 자운교회, 주님의은혜교회, 참빛교회 **20만** 국군중앙교회, 남서울교회 **30만** 100주년기념교회 **70만** 사랑의교회 **5백25만** 새로운교회

※회원 여러분의 귀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사)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의 재정내역은 매월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삶 속의 수많은 생각들을 풀어내는 유일한 기독교세계관 잡지 『월드뷰』.

『월드뷰』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할 수 있도록 함께 후원하실 분들을 기다립니다.
 홈페이지(worldview.or.kr)를 방문하시거나 CMS 신청서를 보내주시면 『월드뷰』의 비전에 동역하실 수 있습니다. ”

후원계좌: 국민은행 602-01-0667-971 (예금주: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My Story in God's Story

대담 및 정리: 유경상 (CTC 대표), 사진: 김건주 (본지 편집장)

지난 7월, 월드뷰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세계관 수련회를 진행하기 위해 방한한 심재승 교수를 만났다.

심재승: 저는 도르트 칼리지(Dordt College)에서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도르트 칼리지는 미국 개혁신교단인 CRC(Christian Reformed Church) 소속으로 미국 아이오와주에 소재한 기독교대학입니다. 이곳에서 가르친 지 8년째 됩니다. 저는 거기서 개혁신학, 켈빈의 기독교강요, 기독교 세계관, 현대신학과 같은 신학 과목과 우리 학교의 코어 커리큘럼이 되는 인문 기초 과목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제가 주력하고 있는 일은 국제기구인 IAPCHE(International Association for Promotion of Christian Higher Education)의 일입니다. 그곳에서 저를 파송해 주어서 기독교세계관, 기독교 학문, 기독교대학 교육을 교수들에게 훈련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도, 필리핀, 타이완, 한국의 기독교대학 교수들이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올해 도르트 칼리지에서 시상하는 John Calvin Award를 받았습니다. 그 상은 기독교적인 사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잘 가르친 교수를 한 사람 선정하여 시상하는 것인데, 재학생, 졸업생, 그리고 온 학교 커뮤니티에서 종합적으로 선정하는 상입니다.



유경상: 그렇군요. 짧은 소개 가운데도 기독교 세계관 교육에 대한 교수님의 열정이 느껴집니다. 최근에는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 교재인 『기독교교육선언』(교육과학사)을 출간하시고 그 내용을 토대로 잠실교회 어린이 여름캠프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 배경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기독교교육선언』이 출간되고 잠실교회에서 캠프를 운영할 수 있었던 것은 IAPCHE 강의를 통해 만난 교수님들과 구체적으로 일하면서 생겨난 결과물들입니다. 기독교 세계관, 기독교 학문, 기독교 교육에 관한 이야기는 많으나 그것을 구체적으로 자기 분야에 조명하거나 접목하는 것이 드문 상황 속에서 이러한 결과물들을 맺었다는 점에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지속해서 진행해 주신 이대부속초등학교와 잠실교회에 감사를 드립니다.

3년 전에 한국에서 와서 Faculty Enrichment Program을 운영할 때 이화여대 사범대학 교수님들을 만나게 되었고 그것을 계기로 이대부속초등학교와 연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대 사범대 교수이면서 이대부속초등학교 교장이신 김정호 교수께서 기독교교육의 기초를 제공하는 문서를 요청하셔서 15페이지 분량의 교재를 써 드렸습니다. 그 후 그 내용을 이대부속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이 배우고 있었고, 2, 3년 지나면서 주변의 여러 교회와 기독교학교에서 그 자료를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계기로 교사용 해설서를 포함하여 어린이를 위한 기독교 세계관 교육 교재인 『기독교교육선언』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그 교재를 이대부속초등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고, 분당의 샘물학교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4년 전, 지금은 은퇴하신 원광기 목사님과 잠실교회에서 강릉에 기독교학교를 세우기를 계획하면서 그분들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종류의 기독교학교를 세우기를 원하는가? 그냥 일반 과목을 가르치고 거기에 채플만 더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아이들에게 기독교교육의 기초를 바탕으로 교육 자체를 재정립할 것인가?”, “좋은 대학, 명문대학 가기를 원하는 부모들의 열망에 어떻게 부합할 것인가?” 등의 질문들을 함께 고민하면서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에 대해 논의하고 준비해 왔습니다.

그러는 과정에서 마침 『기독교교육선언』이 출판되고 이렇게 잠실교회 어린이 여름캠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대부속초등학교와 잠실교회와의 만남과 더불어 『기독교교육선언』을 출판하고 어린이 여름캠프를 운영하게 된 중요한 계기는 도르트 칼리지의 한국 학생들과 만나게 되면서였습니다. 지난 겨울 동안 이 책을 준비





하는 중에 한국 학생들과 교정을 위한 스터디 모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을 읽으면서 그들이 이 책의 내용에 심취하기 시작했고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울기도 하고, 큰 감동과 도전을 받는 일이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한국 사회 어린이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우리가 그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할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재조명하는 나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돌아가서 자신들이 도전받은 것처럼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모였고, 6개월 동안 함께 준비한 결과 잠실교회에서 여름캠프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제가 수업 외에 가장 많은 시간을 쏟아 부었던 IAPCHE 사역과 이를 계기로 연결된 이대부속초등학교를 통해 교재를 준비하게 된 일, 그리고 도르트 칼리지의 한국 학생들과 함께 캠프를 준비하게 된 일 등이 모든 일이 함께 어우러져 이러한 결과물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감사한 일은 기독교 세계관과 삶을 이야기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글로 정리하여 출판하게 되고 또한 이것을 일선 교회와 학교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경상 : 어린이 기독교 세계관 교육 교재인 『기독교교육선언』에 대한 내용이 궁금합니다.

심재승 : 이 교재를 준비하면서 한국 사회의 어린이들이 겪고 있는 현실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한국 사회의 큰 문제 중 하나인 왕따와 빈익빈 부익부 현상, 공부를 통해 사람을 평가하는 것 등이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학교들 사이에도 큰 갈등이 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의 모습에서도 구원받은 것과 구원받지 않은 삶 사이에 큰 괴리감이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도 영생을 위해 중요한 일임에도 실제로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왕따를 비롯한 관계 문제와 초등학교들도 벗어날 수 없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어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하나님의 구속사를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 어떻게 기독교인의 가치를 가지고 살도록 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다시 말해, 어린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현실 세계 속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무엇인지, 빛과 소금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은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인 창조, 타락, 구속의 틀에 기반을 두지만, 중점을 둔 것은 구속된 자의 삶에 대해서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들의 관계를 이야기하기 위해 먼저 관계의 근원이 되는 창조와 생명을 설명했습니다. 생명이란 사람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선물이며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선물을 감사함으로 받아 즐겁게 누려야 하며,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만큼 내 친구도 소중하고 토끼 한 마리를 포함하여 모든 생명체가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이러한 생명의 중요함은 자연스럽게 공동체로 연결됩니다. 가정이 왜 소중한지, 친구 관계가 왜 소중하고 친구들을 따돌려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포함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함으로써 더 적극적으로 살아가도록 안내했습니다.

또한 모든 어린이가 힘들어하는 공부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어린이들이 공부를 힘들어 하는 이유는 왜 공부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창조와 구속에 근거해서 설명했습니다. 만물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소중한 명령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알아야 하고 그것이 바로 세상에 대하여 공부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이 공부해야 하는 이유는 1등을 차지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으로서 세상을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 위함임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일이 무엇인지를 설명했고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을 가지고 자신의 직업 분야에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봉사하는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구속된 삶에서 놀이 역시 중요한 주제입니다. 하지만 인터넷 게임과 가상 세계의 유혹 속에서 자신의 세계 속으로 빠져들어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아이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럿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건전하고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적극적인 놀이는 무엇인가를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도 영생을 위해 중요한 일임에도 실제로 그러한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 갈등을 일으키는 왕따를 비롯한 관계 문제와 초등학교들도 벗어날 수 없는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 공부해야 하는 이유와 같은 문제들을 다루어보고자 했습니다.



캠ป์를 마친 후 어린이들이 소감을 적었는데, 감동 어린 이야기들이 참 많았습니다. “내가 소중한 느낌을 느꼈다.”, “내가 나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소중하다는 것이 내게 감동을 주었다.”, “공과시간에 배운 ‘소중한 나’에서 내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자살할 생각, 가출할 생각만 잔뜩 했었는데 이 공과를 듣고 생각을 바꾸게 되었다.”, “나는 네 가지 공부 중 왕따에 대한 것에 마음이 걸렸다. 나는 한 적은 없지만 본 적은 있었다. 그것도 또한 범죄다. 하지만 앞으로는 다르다. 내가 한 걸음 다가가는 친구가 될 것이다. 나는 앞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것이다.”, “나는 공부해야 하는 이유를 배울 때 제일 좋았던 것 같았다. 하나님을 위해 공부해야 한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되었다.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어서 좋았다.”

유경상 : 교수님의 이야기가 ‘기독교 세계관의 이해와 적용’의 실제 사례인 것 같아 큰 도전이 됩니다. 이러한 사례가 더 많아지기 위해서는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what), 왜 중요한지(why)를 넘어서 기독교 세계관의 핵심 내용을 어떻게 전달하며, 어떻게 실천하도록 할 것인가에 대한 how의 문제에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세계관 교육을 하고 있어서인지 how의 문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실제로 『기독교교육선언』의 내용을 가지고 잠실교회에서 어린이 여름캠ป์를 운영하고 계시는데 이러한 문제를 어떻게 접목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심재승 : 이번에 운영한 캠ป์의 주제는 “My Story in God’s Story”입니다. 이것은 도르트 칼리지 1학년에 게 기독교적인 사고와 삶을 가르치는 과정에서 거기서 사용하는 주제입니다. 이것은 나의 삶이 나 혼자 스스로 헤쳐나가 무엇인가를 이루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이라는 큰 이야기 안에 있는 것임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어린이 개개인의 삶이 무한경쟁 사회에서 주눅 들고 어릴 때부터 열등감에 빠진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소중하게 만드셨고, 망가진 나를 그분의 아들을 통해 구원하셨으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내가 있음을 알도록 했습니다. 어린이들의 생각과 삶의 바탕에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었습니다.

“My Story in God’s Story”는 나는 하나님 안에서 소중한 나, 망가졌지만 돌아온 나, 구속된 나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입니다. 구속된 나는 관계를 통해 설명되는데 이미 이야기한 것처럼 첫 번째 관계는 가정과 친구 관계이며, 두 번째는 공부에 대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을 어린이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 도르트 칼리지 한국인 학생들과 함께 지난 6개월 동안 여름캠ป์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캠ป์를 진행하면서 중점을 둔 것은 우리가 전달하는 이야기가 아이들에게

개념으로만 머물지 않도록 “듣고 생각하고 느끼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캠ป์는 설교, 소그룹 성경공부 나눔, 활동, 저널이라는 심화과정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설교는 “이야기”라고 하여 일반적인 설교나 강의이기보다 어린이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문제점을 올바르게 보게 하고 그것을 성경에서 어떻게 다룰지 이슈를 던져 줍니다. 그리고 소그룹 성경공부 나눔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슈들을 어떻게 보시고 어린이들을 인도하시는지 자세히 들여다보게 합니다. 그리고 내용과 관련된 활동을 실제로 해 봄으로 내용을 경험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널 시간을 가져 설교-소그룹 모임-활동을 통해서 자신이 배우고 경험하고 느낀 것을 정리하고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도록 합니다. 이러한 심화과정을 통해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생각하고 느끼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많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배경과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제가 더 많이 관여하고 싶고 열정을 쏟고 싶은 것은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그것이 가정이든, 학교든, 교회든지 어떻게 실제로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망가져 가고 있는 아이들,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 청소년의 삶에 들어가 이야기하는 것이 제 꿈이었는데 이 캠ป์에서 바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해 캠ป์를 준비해 왔고 차질 없이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2박 3일 동안 큰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몇몇 아이들은 집중하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은 질문에 열심히 대답하고 가끔 좋은 질문도 던지는 것을 볼 때 우리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느낌을 받습니다.



“My Story in God’s Story”가 캠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지속해서 열매 맺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도 부모의 인식이 중요한데 “입시교육과 상관 없이 자녀를 잘 키우자.”라고 말하면 현실적으로 10명 중 1명의 부모만 움직입니다. 나머지 9명의 부모는 예수를 믿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우리의 교육 현실은 어쩔 수 없다고 말하며 타협해 버립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독교교육의 탁월함이 드러나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은 다른 아님 가르치는 사람들, 바로 기독교인 부모와 교사들의 역할입니다. 그들은 인간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아는 사람이며, 창조·타락·구속의 이야기가 실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임을 인식하고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그저 종교적인 신앙고백으로 그치지 않고 사람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또 만드신 온 창조세계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포함함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말씀뿐만 아니라 세상도 잘 아는 것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먼저 진리의 포괄성과 공공성, 그리고 탁월함을 경험하고 그것을 가르침과 삶에 반영하게 될 때 학생들의 변화를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아쉽게도 저같이 미국에서 대학교수로 있는 사람이 한국에 와서 이런 일을 실제로 진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My Story in God’s Story”의 중요성과 의미를 공감하는 교회와 학교에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지속적으로 더 많은 아이들에게 전파되면 좋겠습니다. 『기독교교육선언』을 쓴 이유도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활용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미 두 학교에서 쓰기로 했고 교회에서도 활용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실제로 『기독교교육선언』을 교육적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교사 안내서에 이대부속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사용한 수업계획안들과 예시들을 함께 실었습니다. 또한 캠프를 염두에 두고 30페이지 분량이 되는 네 번의 설교와 네 번의 성경공부 자료를 함께 실어 놓았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면 저는 언제든지 올 수 있으며 활성화를 위해 기꺼이 협력할 마음이 있습니다.

유경상 : 교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일은 기독교 세계관을 전달하는 일, 즉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독교 세계관 교육이 더 나아가 기독교세계관 운동이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심재승 : 기독교 세계관 교육은 교회의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세계관은 공부의 대상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당연히 학자들이 연구해야 하고 가르쳐야 하겠지만, 결코 그들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실제적인 생각과 삶을 위한 양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내용이며 목회의 주제입니다. 네덜란드와 북미주에서 이러한 교육을 교회에서 시작했고 그것을 공감하는 교회들이 기독교학교를 설립했기 때문에 목회와 교육에 일관된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은 어려운 삶의 역사 가운데서 복음이 전파되어 구원과 구원된 사고와 삶 사이에 괴리를 가진 채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나중에 전파된 기독교 세계관은 마치 영혼구원에 더해진 개념처럼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분히 학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전개되었습니다. 저는 성경이 계시하는 하나님의 구속이 우주의 구원임을 목회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창조로 시작하고 새 창조로 마치는 포괄적인 하나님의 구속 드라마임을 실제 목회에 적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목회에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구속의 대상이 됨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자신이 하는 공부와 일, 인간관계와 놀이에서 기독교적인 삶의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실제 삶에서 기독교적인 꿈과 비전, 기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터뷰(대담 및 정리: 유경상 대표) 기독교세계관학술동역회 산하 청소년세계관교육기관인 크리스천생킹센터(CHRISTIAN THINKING CENTER) 대표로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 기독교세계관 교육프로그램과 교재를 제공하는 사역을 하고 있다. 학부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VIEW(밴쿠버기독교세계관대학원)에서 기독교세계관을 전공했고,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철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일산에 있는 센터에서 어린이·청소년 세계관아카데미를, 거룩한빛광성교회에서 어린이세계관학교를 진행하며, 아세아연합신학교에서 기독교세계관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어린이용 세계관 교육 교재 기독교교육선언 어린이를 내게 오게 하라

이해지 (이대부속초등학교 교사)



책의 취지

『기독교교육선언 - 어린이를 내게 오게 하라』는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들이 자신의 삶의 전반을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조망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요즘 기독교학교와 기독교사에 의한 교육 현장에서는 교과 시간을 비롯한 학교생활 전반을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접근하는 시도가 무르익고 있다. 이는 기독교학교에서 예배를 드리는 시간과 성경 수업 시간을 운영하면서, 다른 나머지 시간은 성경과 관련 없이 생활하는 것을 방지하는 이원론적인 접근의 한계와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비롯된 움직임이다. 이런 맥락에서 출판된 이 책은 어린이들이 자신의 생활 전반을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세계관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가질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저자의 말을 빌려 이 책의 취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기독교교육선언』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들로 하여금 구원된 삶에 관한 성경의 가르침을 그들의 삶에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교재로 고안되었다. 그들이 하나님을 올바로 믿고 알며, 구원에 감사하는 마음과 기독교적인 사고를 가지고, 스스로 행복하고 세상과 사회에 유익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것이 본 교재의 목적이다. 어린 학생들은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경험하고 따라서 살도록 돕기 위해서 학생들에게 중요하거나 그들이 당면한 주요 이슈들에 대하여 창조, 타락, 구속의 서술형식을 따라 해설하였다. 『기독교교육선언-교사 가이드북』에서

따라서 어린이용 『기독교교육선언』은 기독교 신앙고백의 핵심인 죄로부터의 구원을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어린이들이 그리스도의 가치를 생각하고, 경험하고, 공부하고, 세상에서 살도록 도울 수 있는 삶의 각 주제에 대한 기독교적 해석을 선언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여기에서 다루는 삶의 주제에는 구속된 삶, 생명 등과 같은 일반적인 생활에 관련된 것들도 포함하지만,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 주요한 이슈가 되는 공부나 놀이, 그리고 미래 일과 직업 등에 대한 주제를 창조·타락·구속에 근거하여 설명하고 있어,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전반적인 삶을 기독교 세계관으로 보는 것을 돕는다.

책의 구조

어린이용 기독교 세계관 책인 『기독교교육선언』은 어린이가 직접 읽을 수 있는 어린이용과 이 교재를 가지고 지도하는 교사가 참고할 수 있는 교사 가이드북, 2권으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어린이용 교재인 『기독교교육선언-어린이를 내게 오게 하라』는 15개의 단원과 46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것은 다시 창조, 타락과 구속, 회복, 소망의 네 개 주제로 묶여 있다. 기독교 세계관의 기저가 되는 창조와 타락, 구속은 앞부분에서 다루고, 이 책에서 많은 조항으로 할애하여 설명하는 부분은 회복에 대한 것이다. 15개 단원을 주제에 따라 묶어 정리하면 오른쪽과 같다.

| |
|----------------------|
| 1. 시작과 요약 |
| 2. 성경 |
| 3. 선한 창조 |
| 4. 죄로 망가진 세상 |
| 5. 구원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
| 6.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
| 7. 하나님의 구원은 만물을 회복한다 |
| 8. 구속된 삶 |
| 9. 생명 |
| 10. 공동체 |
| 11. 학교와 교육 |
| 12. 일 |
| 13. 놀이 |
| 14. 소망 |
| 15. 마치며 |

교사 가이드북에는 어린이 교재인 『기독교교육선언-어린이를 내게 오게 하라』에 대한 저자의 해설과 활용의 예가 소개되어 있다. 앞부분은 어린이용 『기독교교육선언』 전반에 대한 해설을 비롯한 조항별 세부적인 해설서다. 해설 부분에는 어린이용 책자에 실린 본문과 삽화를 그대로 실어 교사가 가이드북을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후반부에는 어린이용 『기독교교육선언』 책자를 학교나 교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안과 캠프 활동 계획의 예가 소개되어 있다. 이 책은 학교나 교회에서 모두 사용 가능한데, 활용의 예에서 소개하는 방식을 기관별, 장소별로 구분하지 않고 있다. 대신, 학교나 교회의 공과 소그룹과 같이 수업 장면에서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교안 형태의 안내서와 캠프 등과 같이 단시일에 집중적으로 주제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안내서 형태로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기독교 교육 선언』을 활용하는 교사는 자신의 목적과 상황에 맞게 다른 형태의 안내를 이 교사용 책자에서 받을 수 있다.

활용의 경험

실제로 『기독교교육선언』은 초등학교 현장과 교회 여름 캠프에서 사용되고 있다. 2012년 잠실교회 초등부 여름캠프에서는 본 교재의 캠프용 안내서에서 제시하는 바대로 이 책자를 활용하였다. 캠프에 참가한 학생들에게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반응에는 공부를 자신의 신앙과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 새롭고 놀라웠다는 것이 많았다고 한다.

이러한 반응은 학교 현장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본인이 근무하고 있는 이대부속초등학교에서 고학년인 4, 5, 6학년 교실에서 학년 초에 이 책을 집중적으로 활용하는데, 다만 3년에 걸쳐 반복적으로 다루는 만큼 학년마다 다루는 주요점을 달리하고 있다. 4학년에서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의 전체 구조를 이해

하게 하고, 창조와 타락 중심으로 깊이 다루면서 우리 생활 전반이 회복될 부분이라는 인식을 하게 한다. 5학년에서는 회복되는 실제 영역들에 대해 더욱 구체적이고 깊이 다룬다. 6학년에서는 자신의 삶에서 회복되는 체험을 실제로 해보게 함으로써 내면화를 꾀하고 있다. 많은 학생들은 자신의 공부나 놀이와 같은 영역까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야 하는 영역이라는 점이 인상적이었다는 반응이 많았다.

이 책에 대한 어린이들의 반응은 이 책으로 공부한 어린이들이 이해한 본문 내용을 담은 그림으로도 나타난다. 실제로 어린이용 교재에 수록된 삽화는 이대부속초등학교에서 이 교재 본문으로 공부한 학생들이 본문에 대해 이해한 바를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중에서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어린이 『기독교교육선언』의 창조 부분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 전체가 우리의 집(house)이 된다는 것으로, 타락 이후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회복해야 하는 부분도 바로 ‘그 집(house)’인 ‘이 세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처음 사흘은 빛, 하늘, 물과 육지라는 공간인 ‘집(house)’을 만드시고, 다음 사흘은 각각의 공간을 해 · 달 · 별로, 하늘 생물로, 바다 생물 · 육지 생물 및 사람으로 채우셨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개개인이 사는 집을 가꾸고 지키듯 우리 인간이 사는 집으로서의 공간과 환경인 ‘집(house)’을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하면서, 회복되는 이 세상의 제 문제를 일반적인 문제가 아니라 나 개인의 현재 상황 문제로 갖게 한다. 삽화 1은 그 내용을 학습한 학생이 이해한 창조 세계를 형상화한 것으로, 전 우주적인 문제를 개인화시키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삽화 2와 3도 이 책의 주요 정신을 아이들 수준에서 잘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아이들은 이 책으로 공부하면서 우리의 다양한 관계와 일과 직업 등이 예수님과 떨어뜨려 따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통해 회복될 수 있고 그 안에서 완성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와 같은 활용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책은 어린 학생들의 생활 전반을 기독교 세계관에 기초하여 일관적으로 지도하는데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책이라 여겨진다. 그리고 한 번 읽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시기를 달리하면서 반복적으로 읽혀 학생들로 하여금 삶의 전반을 점검할 기회를 갖게 하는 것도 좋을 듯하다.



이혜지 이대부속초등학교 교사로 이화여자대학교 초등교육학과 아동발달과 교수이론 (Ph. D.) 을 전공하였다. 박사논문으로 <기독교교육과정 재구성에서 교사의 경험에 대한 사례연구>(2011)가 있다.



텔레비전 중매쟁이가 말하는 결혼상대 고르는 법

요즘엔 텔레비전도 중매를 합니다. 마치 단체미팅처럼 여러 명의 남녀를 출연시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 커플로 맺어주는 이른바 “짜짓기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 박진규 (서울여대 언론영상학부 교수)

90년대 중반 MBC에서 방송되던 <사랑의 스튜디오>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결혼 적령기의 일반인 남녀 각 각 4~5명씩 나와서 게임과 퀴즈, 장기자랑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뒤 최종적으로 “사랑의 작대기”라 불리던 장치로 짝을 맞춰가던 오락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지금은 폐지되었고 추석이나 설 등의 명절에 연예인 특집으로 만들어져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지요. <사랑의 스튜디오> 이후로는 <친생연분(MBC)>이나 <장미의 전쟁(KBS)>처럼 연예인들을 출연시켜 비슷한 포맷으로 꾸민 프로그램들도 있었습니다.

“결혼정보회사”라 불리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중대사인 결혼을 앞두고 상대자를 찾는 이들에게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일을 하지요. 예전에는 많이 볼 수 있던 중매쟁이가 기업화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요즘엔 텔레비전도 중매를 합니다. 마치 단체미팅처럼 여러 명의 남녀를 출연시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는 마음에 드는 사람을 선택, 커플로 맺어주는 이른바 “짜짓기 프로그램”이 그렇습니다.

요즘 방송되는 것으로는 SBS < 짝>을 들 수 있습니다. 원래 이 프로그램은 2011년 초 <SBS 스페셜, 애정촌>이라는 제목의 단막 다큐멘터리로 제작되었습니다. “애정촌”이라는 가상의 공간에서 일주일 동안 함축하면서 결혼상대를 고르기 위해 벌이는 결혼 적령기 청춘 남녀의 경쟁과 심리를 분석한 다큐멘터리였지요. 미래의 배우자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세대와 심리를 꽤 흥미롭게 그려냈습니다. 그러더니 다큐멘터리적 요소를 줄이고 오락적 요소를 강화하여 정규 편성되기 시작합니다.



1년 반이 넘는 기간 동안 < 짝>은 술한 화제를 낳았고 “돌싱특집”, “만혼특집”, “모태솔로특집” 등 출연자의 성격을 특화한 에피소드로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과거 직업을 속이고 나온 출연자 때문에 논란이 되기도 했고, 실제 결혼으로 이어진 커플들이 탄생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 짝>이 대중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MBC에서는 <정글러브>라는 비슷한 프로그램이 나왔고, 종편채널 MBN은 <마파도(마지막 파트너 도전)>라는 제목으로 노인 대상의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습니다.

< 짝>의 기본 포맷은 이렇습니다. 결혼 적령기 남녀 각 5~7명이 애정촌에서 일주일간 함께 생활합니다. 경쟁을 부추기기 위해 남녀의 숫자를 달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이 여기 모인 이유는 단 하나, 결혼 상대자를 만나기 위해서입니다. 애정촌에서는 서로의 이름 대신 “남자 O호”, “여자 O호”라는 호칭을 사용합니다. 모두 똑같은 옷을 입고 등에는 자신의 번호표와 함께 “나도 짝을 찾고 싶다”는 슬로건을 달고 있습니다. 사람이 가진 외적 조건을 벗어버리게 한다는 의도라고 설명하지만, 여기 모인 사람들은 서로에게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상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너무도 명백한 목적을 가지고 만난 이들이 상대를 선택함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나 인간적 연민 따위는 무시해도 좋도록 돕는 장치라고나 할까요?

프로그램은 일주일 동안 이들의 생활을 성우의 내레이션과 함께 보여줍니다. 내레이션은 사람들의 미묘한 심리상태를 친절하게 설명해 줍니다. 짜짓기를 둘러싼 행동과 심리를 표현하는 방식이 마치 다큐멘터리 <동물의 왕국>을 보는 것 같다는 비아냥을 듣기도 했지요. 그런가하면 출연자들은 자신의 속마음이 어떠한지, 또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각자 카메라 앞에 털어놓습니다. 시청자들이 그들의 속마음을 꿰뚫은 채 경쟁구도를 지켜보는 재미를 느끼도록 하는 겁니다.

애정촌에 들어온 첫날 이들은 서로의 나이나 직업, 출신을 비롯해 서로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로 만납니다. 첫 인상과 외모만 가지고 서로를 평가하는 것이지요. 둘째 날 자기소개 시간이

되면서 출연자들의 “스펙”이 드러납니다. 자기소개가 끝나면 프로그램은 마치 운동선수의 프로필을 소개하듯 출연자들의 나이, 최종학력, 직업 등의 정보를 담은 화면을 계속해서 보여줍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경쟁입니다. 두 번의 “도시락 선택”, “식사와 데이트 선택”, “데이트 권 쟁탈 체육대회” 등의 장치를 통해서 상대방에게 호감을 표시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호감도가 서로 엇갈려 오해도 생기고, 인기 있는 사람을 두고 치열한 질투와 경쟁이 벌어집니다. 마지막 날 이들은 서로의 마음을 결정하고 최종선택을 합니다. 자신의 결혼 상대로 선택한 사람을 지목하거나 또는 아무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일치할 때만 커플로 탄생하게 됩니다.

일주일의 생활을 보여주면서 미래의 배우자에 필요한 많은 조건과 기준이 언급되는 것 같지만, 결국 이들의 선택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그건 외모와 학력, 직업으로 요약됩니다. 사실 학력과 직업은 “능력”이라는 말로 바꿀 수 있으니 결국 외모와 능력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첫 만남에서부터 외모는 출연자들에게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겉모양의 힘은 사람들의 마음을 일주일 내내 움직일 만큼 강력합니다. 특히 남성 출연자들에게 여성의 외모는 가장 중요한 덕목인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또 직업과 함께 학력도 매우 비중 있게 다뤄집니다. SBS의 홈페이지 “다시보기”방에서 매회 출연자들을 학력과 직업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외모의 부족함을 메울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인 것 같습니다. 매회 출연자들은 달라지지만 최종선택의 기준은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관한 기사나 시청자들의 반응도 언제나 이 두 가지에 머물러 있습니다.

〈짝〉이 보여주는 결혼 상대를 고르는 방식은 너무나 본능적이어서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결혼 상대를 고르는 인간의 본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이 프로그램을 욕할 수만도 없습니다. 그게 현재 우리가 사는 사회적 현실의 축소판이기 때문입니다. 외모와 능력이 권력이 된 사회에서 이를 결혼 조건으로 내거는 걸 무조건 손가락질하기는 어렵습니다. 더구나 스스로의 노력과 수고를 통한 계층이동의 기회가 점점 줄어들고 그 가능성이 낮아지면서 사랑이나 결혼은 이제 거의 유일한 계층이동 수단이 되어 버렸습니다. 점점 더 결혼에서 외적인 조건을 따지게 되는 이유일 겁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아, 결국엔 서로 비슷한 환경, 조건끼리의 만남으로 귀결되는 게 보통입니다. 이렇게 〈짝〉은 우리가 다 알면서도 내심 모른 채 하거나, 짐짓 아닌 척하는 것을 들춰내기 때문에 불편한 건지도 모릅니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만약 〈짝〉의 ‘크리스천 편’이 만들어진다면 어떨까요? 지금의 〈짝〉과 다를까요? 다르다면 어떻게, 얼마나 다를까요? 우리가 교회에서 결혼 적령기에 있는 교우에게 누군가를 소개시켜줄 때 가장 먼저 고려하는 건 무엇입니까? 〈짝〉이 보여주는 기준에 “믿음이 좋아야 한다”는 조건만 하나 더 붙는 건 아닐까요?

모름지기 세상과 구별되어야 하는 우리라면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도 분명히 달라야 할 것입니다. 외적인 조건이나 겉모습 보다는 사람의 내적 아름다움과 진실됨, 신실함 등을 보아야 마땅합니다.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사람 대하는 방식이 그러하셨으니까요. 하지만 〈짝〉이 보여주는 결혼 상대 고르는 법에는 이런 내면에 대한 관심은 적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내면까지 세심히 살피기에는 턱없이 짧기도 하지만, 그렇게 제한적인 상황에서도 평생 반려자를 고를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세상의 관심이 결국 어디에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결혼 상대뿐 아니라 사람을 인정하고 대접하는 기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실 〈짝〉이 보여주는 건 단지 배우자를 고를 때뿐 아니라 우리가 사람의 가치를 평가할 때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모든 사람이 동등하다는 건 단지 구호에 불과할 뿐 그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은 엄연히 존재한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평가하는 방식을 생각해 봅니다. 어떤 사람이 인정받고 존경받는지를 돌아켜봅니다. 어떤 사람이 “직분” 말을 사람으로 거론되는지를 기억해 봅니다. 외모, 학력, 직업, 재력, 영향력 등 세상과 그리 다르다고 할 수 없는 기준으로 사람들을 평가해 왔던 우리의 모습이 떠올라 부끄럽습니다.

텔레비전 중매쟁이 〈짝〉이 들려주는 불편한 교훈입니다.



박진규 서울여자대학교 언론영상학부 교수. 연세대학교 신문방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콜로라도대학교에서 커뮤니케이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공분야는 “미디어와 종교”로서, 종교와 미디어라는 두 개의 개별 영역이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지점에 관심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파란색 꼬마 물고기가 나빠요

현은자 (성균관대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혹시 월드뷰 6월호에 소개되었던 끌로드 부종의 『아름다운 책, 기억하시는지요? 토끼 형제, 형 에르네스트와 동생 빅토르가 등장하는 재미있는 그림책입니다. 빅토르가 그림책을 보며 토끼가 여우를 혼내주는 장면을 보며 기뻐하자 형 에르네스트가 책에 있는 것을 다 믿으면 안된다고 훈계하는 장면이 반복되지요. 흔히 독서의 즐거움이라고 하면 빅토르와 같은 ‘몰입하여 읽기’를 떠올리기 쉽지만 에르네스트가 취한 ‘저항하며 읽기’도 그에 못지않은 즐거움을 제공합니다.

모든 문학 작품은 독자에게 이 세계가 어떻게 되어 있으며, 또 어떻게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작가의 견해를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직설적으로 표현되기보다는 다양한 설득장치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작품 안에서 독자가 보아야 할 것과 보지 말아야 할 것을 통제하기도 하고, 작품의 소재를 신중하게 계산된 방식으로 배열하기도 하고, 특정한 인물을 설정하고, 대조되는 상황을 배치하기도 하고, 작품 안에서 직접 평가적인 서술을 하기도 하고, 결말을 짓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이러한 설득장치를 발견하고 그것이 독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숙고하는 독서 행위를 ‘저항하며 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중매체가 우리의 눈과 귀를 사로잡고 있는 문화에서 ‘저항하며 읽기’는 모든 독자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특별히 기독교 교사와 부모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TV나 컴퓨터의 콘텐츠와 비교하여 볼 때 그림책에서 ‘저항하며 읽기’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부모나 교사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림책이 어린이를 위한 쉽고 단순한 책이라는 선입견도 작용하겠지만 그것보다 국내에서 출판되고 있는 그림책의 80% 이상이 번역물인 것도 큰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판사들이 외국 그림책을 번역·출판하려 할 때 국제적인 그림책 상의 수상경력이나 작가의 인지도를 가장 중요시 여기고 있고, 또 그러한 책들이 더 잘 팔리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림책의 평가에 있어서 예술성과 독창성도 중요한 것이지만 작품의 세계관을 분석하는 일은 이 시대의 정신을 분별하고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합니다.

그 문제를 다루기 위해 인간의 생명에 관련한 두 권의 그림책을 예로 들어볼까 합니다. 바넷 콜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엄마가 알을 낳았다(Mummy laid an egg!)』와 브라이언 멜로니가 글을 쓰고 로버트 잉펜이 그린 『살아있는 모든 것은(Lifetimes)』입니다. 바넷 콜은 생활습관, 성교육, 이혼, 성장과 노쇠, 옛이야기 등 다양한 주제를 고정관념을 깨는 독창적이고 도발적인 상상력으로 풀어나가는 것으로 유명한 영국 작가입니다. 그의 그림책은 유아 교사와 부모에게도 인기가 높으며 독특한 작품 스타일은 어린이 문학 관련 저서와 논문에서 자주 다루어 질 정도로 학술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작품만 10여 권이 되며 2011년에는 어린이문학교육 학회에 초청되어 자신의 작품 세계를 소개하고 일러스트레이션 작업 과정을 즉석에서 보여주어 큰 인기를 끌기도 하였습니다. 그의 작품 중에서 성교육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엄마가 알을 낳았다』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엄마와 아빠가 거실 소파에서 동물들과 함께 아무렇게나 누워 있는 딸과 아들에게 와서 아기가 어떻게 태어나는지 설명해 주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설명이라는 것이 공룡이 아기를 가져온다, 생강뿔처럼 구워 나온다, 바위틈에서 나온다, 튜브에서 짜듯이 나온다... 식으로 허무맹랑하기 짝이 없습니다. 신화에서나 나올 법한 이야기들이지요. 그러자 아이들이 까르르 웃으면서 자신들이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그림을 그려서 가르쳐 주겠다고 합니다. 엄마의 뱃속에는 알이 있고 아버지는 고환에 씨가 있어서 그 씨가 튜브를 통해 밖으로 나와 엄마의 뱃속으로 들어가서 엄마의 알과 합하여 아기로 자라고 어느 날 엄마 몸 밖으로 아기가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거실문을 열자 소, 말, 거위, 토끼 등 온갖 동물들의 암컷이 새끼들을 데리고 들어옵니다. 구석에서 부끄러워 입을 가리고 있는 부모들에게 아이들이 “보시겠어요? 다 그런걸요.” 하면서 의기양양해 하는 장면으로 이야기는 끝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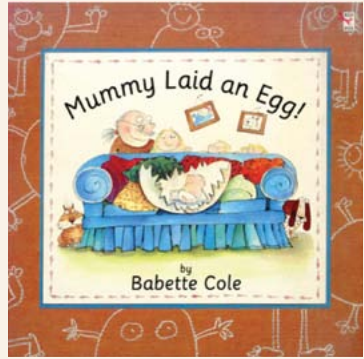


또 다른 작품, 『살아있는 모든 것은』은 주로 자연 사랑과 생명 존중을 그리는 로버트 잉펜이 그림을 그린 작품입니다. 잉펜은 1986년 아동문학의 노벨상이라고 할 수 있는 안데르센 상을 받았으며 10여 년 전 볼로냐 어린이 책 전시회에서는 그 해의 논픽션 작가로 선정되어 전시회장 입구가 온통 그의 일러스트레이션으로 장식되기도 했

수명이 아무리 길어도,
수명이 아무리 짧아도,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것은
모두 마찬가지란다.
그 사이에만 사는 거지.

이 세상 모든 것이 다 그렇지,
풀도,
사람도,
새도,
물고기도,
토끼도,
아주 작은 벌레까지도,
이 세상 어디에서나!

습니다. 산문시로 쓰인 글 텍스트는 살아 있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그리고 잉펜의 그림은 모래 위의 죽은 게, 잡혀 먹고 남은 나비의 날개 등 생명이 떠나간 육체의 이미지를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람도 그들과 마찬가지로 삶을 삽니다. 육칠십 년을 사는 동안 자라고 어른이 되고 나이가 드는 동안 병을 앓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지만 결국 수명만큼만 사는 것입니다.



세상 만물은 어떤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라 저절로 생긴 것이며 정해진 시간 만큼만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앞서의 바벳 콜의 작품이 코믹하고 유머러스하게 인간의 출생의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 작품은 매우 차갑고 객관적인 시선으로 생명체의 죽음과 사물의 소멸을 노래합니다. 분위기와 어조가 대조적임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 모두 우연히 태어난 생명으로서 인간을 보고 있는 인간관은 동일합니다.

저는 가끔 수업 중에 학생들에게 이 두 작품을 보여주고 우리의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묻곤 합니다. 학생들은 처음엔 대부분

인터넷에 올라있는 서평과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엄마가 알을 낳았어요』에 대해서는 작가의 유머감각을 높이 사고 과학적으로 생식과정을 가르치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에 대해서는 생명의 탄생과 소멸이 원래 그런 것이 아니겠느냐며 그 관점을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기도 하고 실망스럽기도 한 것은 기독교 학생들의 반응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들 역시 현대 학문을 지배하고 있는 진화론적 세계관에 함몰된, 신앙과 학문 따로의 이원론적 세계관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이 작품들 안에 숨겨진 설득장치를 분석해 볼 것을 요청합니다. 『엄마가 알을 낳았어요』의 캐릭터를 분석한다면, 어리숙해 보이는 부모들이 아기의 출생에 대해 어처구니없는 설명을 늘어놓는 반면, 당차고 똑똑해 보이는 아이들은 소위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그 과정을 설명합니다. 이러한 대조적인 두 유형의 캐릭터 중에서 독자들은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편에 서게 되겠지요. 또한 『살아있는 모든 것은』에서는 잉펜의 호소력있는 그림과 함께 동식물과 사물의 유한한 삶이 불리며 그 연장선에서 인간의 삶과 죽음의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는 증조할머니의 사진이 들어 있는 액자 앞에 할머니, 엄마, 아이 둘이 독자를 조용히 바라보고 있습니다. 글과 그림이 결합하여 조성된 이러한 분위기에서 인간의 삶도 죽음으로 끝이라는 결론은 호소력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설득 장치에 덧붙여 작가와 작품에 대한 유명세도 독자의 '저항하며 읽기'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작가에 대해 언급을 하지 않고 학생들에게 그림책을 촘촘히 읽어볼 것을 제안합니다. 유명세와 권위가 배제된 작품의 세계관 분석은 종종 학생들을 좀 더 적극적인 비판적인 사고로 이끌고 점차 그들은 자신이 죽음으로서 무(無)가 된다는 것에 대해 불편해 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은 종교가 없지만 웬지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학생들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유아들에게 책을 읽어주다 보면 기대하지 못한 상황에서 유아의 '저항하며 읽기'를 발견하는 때도 있습니다. 그 예를 하나 들기로 하지요. 『무지개 물고기는 스위스 태생의 베스트셀러 그림책 작가 마르쿠스 피스터의 그림책입니다. 이 작품에서 이야기보다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홀로그램 특수 인쇄 기법으로 그려진 화려한 일러스트레이션입니다. 푸른 바닷속에 빛나는 은빛 비늘을 가진 무지개 물고기가 살고 있었습니다. 물고기들은 무지개 물고기의 비늘을 보며 감탄하고 무지개 물고기와 놀고 싶어 하지만 무지개 물고기는 잘난 척하며 그들을 무시합니다. 어느 날 파란 꼬마 물고기가 와서 비늘을 하나만 달라고 요청하자 무지개 물고기는 소리를 지르며 거절합니다. 마음이 상한 파란 꼬마 물고기는 친구들에게 가서 그 일을 이르고 결국 아무도 무지개 물고기와 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외로워진 무지개 물고기가 문어 할머니에게 찾아가 고민을 털어놓자 문어 할머니는 그에게 비늘을 나눠주라고 조언하고, 그 조언에 따라 자신

의 빛나는 비늘을 한 개씩 다른 물고기에게 나눠준 무지개 물고기는 그들과 친구가 되어 즐겁게 놀니다. 친구와 매일 무엇인가를 놓고 티격태격 다투는 어린이들의 일상적인 삶을 그린 작품이라고 할 수 있지요. 인터넷 서평을 보니 교사와 엄마들이 이 그림책을 '나누기' 미덕을 가르치고 더불어 사는 삶의 기쁨을 맛보게 해줄 수 있는 이야기라고 적극 추천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유아 교사들이 유아들에게 이 책을 읽어주고 극놀이나 미술 활동을 한 후 그 동영상을 블로그에 올리고 있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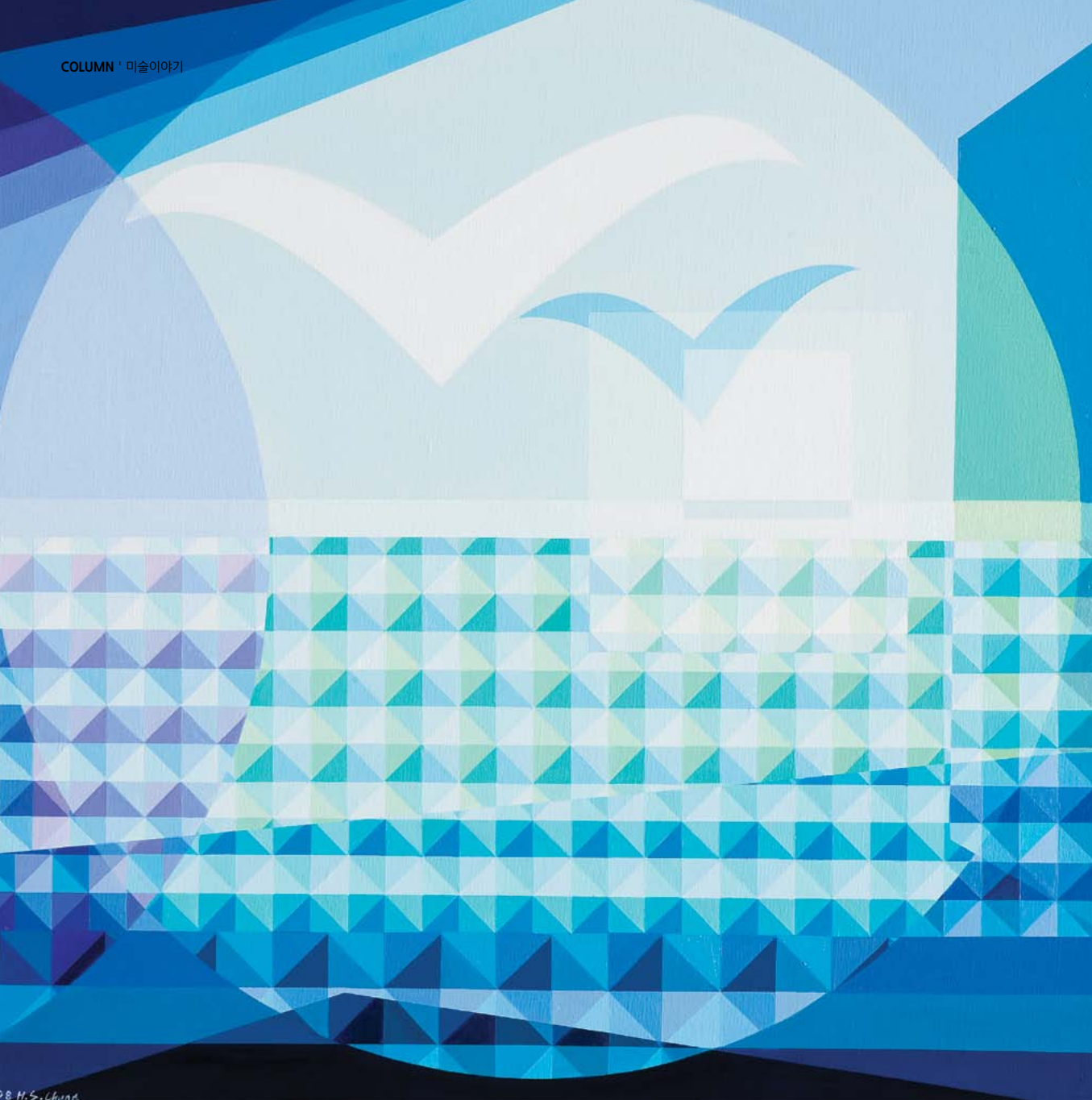
저도 오래 전 아들이 유치원에 다닐 때 이 책을 읽어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이는 파란 물고기가 무지개 물고기에게 다가와서 비늘을 달라고 하는 장면에서 잠시 멈추더니 "엄마, 파란색 물고기가 나빠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뜻밖의 반응에 놀라 "왜?" 라고 묻자 "왜 남이 가진 것을 달라고 하나요? 그리고 무지개 물고기를 따돌렸잖아요" 합니다. 그 순간 저는 무척 난처해 졌습니다. 저도 그 이야기의 맥락에서는 무지개 물고기는 파란 물고기의 요청을 매몰차게 거절한 욕심꾸러기에 심심쟁이이며 파란 물고기는 피해자임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파란 물고기는 작은 꼬마이기도 하니까요. 그러나 그 때 어린 아들은 무지개 물고기를 판단하기에 앞서 파란 꼬마 물고기의 행동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는 남의 것을 욕심 뿐 아니라 무지개 물고기를 왕따시킨 파란 꼬마 물고기의 행동이 더 거슬렸던 겁니다. 이 일로 인해 저는 이 작품에 '있는 사람 것을 나누어서 모두가 평등해짐'이라는 암묵적 가치관이 들어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훈이나 주제 가르치기를 목적으로 한 책 읽기의 위험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인이 정해 놓은 틀 안에서 작품을 아이들에게 전달하려고 할 때 그들의 '이유 있는' 예외적 반응은 무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유아의 '이유 있는' 반응을 경청하고 존중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성인의 고정관념과 선입견, 그리고 작가의 권위에 매여 있지 않은 유아들의 생각과 언어는 종종 우리를 놀라게 하고 웃게 하고 혹은 사물을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합니다. 그림책을 볼 때에도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열린 마음으로 읽고 상상합니다. 그들은 성인과는 다른 방식으로 등장인물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나름대로 이야기를 해석하고 의미를 발견합니다. 아직 그들이 살아온 기간이 짧아서 세상의 경험과 문학적 지식, 언어는 부족할지 모르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는 '신선한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분별력'이라는 나무의 작은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어린이들은 아주 어린 나이에서부터 다양한 미디어를 접하면서 자라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포함한 각종 디지털 미디어가 쏟아내고 있는 광고, 드라마, 오락 프로그램, 뉴스, 만화, 게임, 영화가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현대인들의 영혼과 생각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오직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는 속하지 않은 기독교 부모들만이 자녀들의 미디어를 '저항하며 읽기'를 격려할 수 있을 것이며 그러한 자녀들은 대중매체가 쏟아내는 이야기에게 무분별하게 설득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갈수록 더해지는 "어그러지고 거스리는"(빌 2:15) 이 시대의 정신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현은자 성균관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아동청소년학과 교수. 대표 저서로는 『그림책의 이해 1, 2』, 『그림책의 그림읽기』, 『세계 그림책의 역사』, 『즐거운 그림책 읽기』(현은자, 최경, 윤아혜)가 있으며 성균관대 생활과학연구소의 그림책 전문가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투영-은혜의 바다, Oil on Canvas, 60.6*60.6cm, 2008.

정해숙, 영적인 보화를 담아내다

서성록 (안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정해숙 작가는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및 동대학원 서양
화과를 졸업하고 총 8회의
개인전과 150여 회의 크고 작은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심사위원과
기독교 미술대전 심사위원, 그리고 사랑의
교회 미술인선교회 회장을 역임하였다.

하늘의 별을 보면 놀랍기 그지없다. 한 치도 벗어남이 없이 태초부터 그 자리를 지켜오고 있으니 말이다. 그것들은 자기 궤도를 이탈하지 않고 묵묵히 정해진 행로를 걷는다. 무수한 별이 질서를 지켜왔기에 오늘과 같은 우주가 있는 것이며, 이런 점에서 별들이 질서를 지키는 모습은 아름답기만 하다.

정해숙의 작품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네모와 세모, 막대와 색 띠로 이루어진 수많은 면이 모두 질서정연하게 자리잡고 있다. 기하학적이고 윗티컬한 구조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표정을 짓고 있는 도형들이 다채롭기만 하다. 미학자들이 말한 '다양성의 통일'이라고 함은 바로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다. 이웃해 있는 면들과 다투거나 경쟁하지 않고 오히려 인접 면을 도와주고 전체의 통일성에 이바지한다. 작은 조각들이 모여 큰 조각을 이루고 그렇게 전체의 이미지를 형성해간다. 모든 부분은 그림에 필수적인 요인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해숙의 작품은 이처럼 '질서의 미'를 새삼 일깨워준다.

맑고 청아한 공간

그의 회화는 양식적으로는 서정적 추상과 대비되는 기하학적 추상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정해숙의 작품은 냉랭하거나 무표정하지 않다. 그가 추구하는 것은 기하학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또한 시각적 효과 자체가 목적도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기하학은 '의미'에 자리를 내주며 거기에 봉사한다는 데에 작품의 특색이 있다.

그가 실어내는 '의미'를 설명하기에 앞서 화면의 도상을 점검해보기로 하자. 색깔은 경쾌하고 서로 사이 좋게 어울리는가 하면 각종 이미지도 이에 호응하여 보조를 맞춘다. 푸르른 바다, 강렬한 빛과 그 빛이 물위로 반사될 때와 같은 눈부심, 시원스레 뻗은 수평선과 그 위를 훨훨 나는 새가 시야에 들어온다. 색깔은 푸르고 리듬은 지속적이고 전체적인 분위기는 평화스럽다.

그의 작품은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드넓은 창공을 연상시키는데 이런 이미지의 탄생은 그의 해외 체류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해숙은 수년간 가족과 함께 말레이시아의 수도 쿠알라룸푸르에 거주한 적이 있다. 거기서 접한 남태평양의 파도와 반짝이는 모래사장, 새파란 하늘이 그의 작업에 영감을 주었다. 그의 그림을 밝게 물들이는 코발트 블루, 터키, 에메랄드, 바이올렛 색상들은 열대의 자연을 연상시키며 청정지역의 아름다움, 생명의 호흡을 잃게 해준다. 안구를 정확히해주는 아름다운 풍광이 아닐 수 없다. 순도 높은 색상과 빛이 부서질 때의 찬란함을 자주 구사하는 것은 이런 경험과 관련되어 있다. 일찍이 평론가 이일은 작가의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화면의 구성 요소로서의 대비적 관계, 그것은 또 한편으로는 극소와 극대, 부분과 전체와의 그것이다. 그리고 이 양자는 서로 겹치고 또 스스로 증폭되어 가면서 일종의 다중적인 공간을 형성한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평면적이자 동시에 이중 삼중의 깊이 있는 공간이며 정신적 투영으로서의 투명한 공간이기도 한 것이다. 그것은 엄밀하고도 정연한 내재적 리듬에 의해 통제되는 공간이다.”(1992)

이 글은 그의 그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준다. 큰 틀에서 극소와 극대, 부분과 전체의 대비는 여전하며, 두 요인이 엇물리고 병행하면서 화면을 촘촘히 직조해간다. 이성애 의지하면 차가워지고 감성에 의지하면 과할 수 있는데 무리수를 두지 않고 화면을 차분히 경영해가는 것이 흥미롭다. 그런데 그의 회화는 통상적인 기하학적 추상과 다르게 강한 암시성을 띠고 있다. 찬란한 빛이 쏟아져 내리는가 하면 갈매기가 새파란 창공을 가르며 비상한다. 하늘로 올라가는 계단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등장하는가 하면 장막이 열린 사이로 환한 빛줄기가 불타는 운석처럼 지상으로 쏟아져 내리듯 쏟아진다. 영롱한 색깔이 말레이시아의 해변에서 영감을 받은 것이



1. 투영-열린 길, Oil on Canvas, 130.3*130.3cm, 2001.
 2. 투영-기도, Oil on Canvas, 112*112cm, 2005.
 3. 투영-영원의 문, Oil on Canvas, 91*91cm, 2005.

라면 이 빛줄기는 바로 그의 신앙에서 비롯된 것이다. 단순히 기계적인 행위가 반복되는 추상작품이 아니라 천상을 향한 마음이 결합한 공간이요, 영혼의 소망을 함축한 공간이다.

빛의 감응

그의 작품에서 도드라진 오묘한 빛의 감응에 대해선 약간 부연설명을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 빛이 작품의 주요 인자(因子)인 동시에 그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빛을 매개로 그가 하고 싶은 말을 전달한다는 얘기이다.

〈투영-사랑의 하나님〉, 〈투영-꿈꾸는 섬〉, 〈투영-새벽기도〉, 〈투영-좁은 문〉, 〈투영-은혜의 강〉, 〈투영-생명의 강〉, 〈투영-사랑의 예수님〉, 〈투영-부활〉 등은 다이아몬드처럼 다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십자가, 창문,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나올 뿐만 아니라 각 면에서도 흰빛이 나온다. 이것은 취리히의 명소가 된, 샤갈이 제작한 프라우 뮌스터(Frau Muenster)의 스테인드글라스를 떠올리게 한다.

〈투영-열린 길〉은 중앙의 네모에서 빛줄기가 나오는 장면을 그린 것이다. 마치 프리즘을 통해 여러 빛이 나오듯이 네모의 각 변을 따라 길이 새겨지고 그 길을 따라 빛이 새어나오는 모습이다. 기하학에 또 다른 기하학이 겹쳐지면서 빛은 더욱 밝아지고 명료해진다. 색으로 빛을 만들고 그 빛이 정신으로 변하는 효과를 연출하는 셈이다. 예술의 최종 단계에 이르면, 모든 것이 사라지고 오직 영혼의 깊이를 바라보는 눈길만 남게 된다는 인식을 강조하는 것 같다.

〈투영-은혜의 바다〉는 상하 두 부분으로 화면이 나뉘어 있다. 위쪽에는 새가 날아가고 아래쪽에는 수없이 많은 네모 조각들 사이로 영롱한 빛을 쏟아내고 있다. 얼른 보면 평범한 그림 같지만, 이 그림의 포인트는 좌측 상단의 삼각형에 있다. 명도를 달리하는 삼각형은 마치 장막을 거두고 강한 빛을 발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게다가 먼 곳에서 날아온 새를 기용하여 신비로움을 고조시키고 있다. 마치 천상의 새 같은 이미지를 안겨주고 있는 것이다. 지상은 오색찬란한 표정을 지으며 이들을 반겨주고 있다.

〈투영-기도〉는 장막 사이로 빛줄기가 쏟아지며 중앙에 계단이 놓인 그림이다. 중앙에 수직으로 빛이 드리워지고 다시 그 주위를 큰 원이 에워싸고 있는데 여기서도 빛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림에 생명을 주는 것은 빛이며 위로 올라갈수록 빛은 더욱 환해진다.

이처럼 빛은 정해숙의 거의 모든 작품에 흐르고 있다. 그 빛은 인상주의자들이 그랬듯이 자연현상에서 비롯된 물리적인 광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인 빛이요 초월적인 빛이다. 이 영적인 빛줄기가 없었더라면 인간의 삶이 어떨지 상상할 수조차 없을 것이다. 조나단 에드워즈(J. Edwards)는 영적인 지각의 눈으로 모든 것을 살피는 일이야말로 비길 데 없는 '고상한 기쁨'이라고 말한 적이 있다. 참된 선과 거룩



서성복 인동대학교 미술학과 교수, 홍익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와 동대학원 미학과를 졸업했으며, 미국 동서문화센터 연구원을 지냈다. 주요저서로는 『한국 현대회화의 발자취』, 『렘브란트의 거룩한 상상력』, 『미술의 터치다운』, 『박수근』, 『렘브란트』, 『미술관에서 만난 하나님』 등이 있으며, 공저로는 『우리 미술 100년』이 있다.

의 아름다움을 지각할 수 없는 사람들을 일컬어 성경은 눈멀고 귀먹고 죽어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자주 환기하고 있다.

정해숙이 그리는 빛은 바로 이 문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가 나타내는 빛은 '영적 광채'요, 이 광채는 신적 임재를 경험할 때만 나타나는 심령의 기쁨을 표상한 것이다.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닌, 계시를 통해 다가온 빛이다. 우리가 보는 빛은 어쩌면 다마스쿠스에서 사울을 바울로 변모시킨 한없는 은총의 빛인지도 모른다.

작가는 이렇게 '마음의 수조(水槽)에 채워져 있는 것을 그림을 통해 실어낸다. 보다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복음의 신비가 가져다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벧전 1:8)을 표상하고 있는 셈이며, 주님을 향한 신앙의 묘목이 자기 안에 뿌리를 내리게 하고 그 뿌리가 점점 자라 자신뿐만 아니라 결국 보는 사람들의 마음도 충만해지게 만드는 것이다.

예술의 역사에서 신앙은 늘 있었지만, 밖으로 완전히 드러나지 않고 늘 감추어져 왔다. 그 진가가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고 오해를 받아왔던 것이 사실이다. 작가가 가장 빛나고 영화로운 세계를 자기 예술의 주제로 삼고 있는 것은 이런 점에서 하나의 도전이 아닐 수 없다. 그런 모습은 마치 밭에 숨겨져 있던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 그 밭을 산 성경 속의 농부를 연상시킨다. 그런 심정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자기의 기쁨을 역력히 표현할 수가 있었을까... 요컨대 그의 그림은 마음의 갱도에 자리 잡은 '영적인 보화'를 조형이란 곡괭이로 채굴한 것 같은 느낌을 받는다. 멀고도 깊은 곳에서 건져 올렸기에 더욱 값지지 않을까.



『십일조』

더글라스 르블랑 지음 | 윤종석 옮김 | IVP

☞ 이상웅 (충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교수)

본서는 IVP 영성의 보화 시리즈 중 한 권으로 기획 · 출간된 것이다. 이 시리즈가 목표하는 것은 “성경 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영성 훈련들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한 적용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저자인 더글라스 르블랑(Douglas LeBlanc)은 목회자나 신학자가 아니라 성공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작가이자 기자이다.

서평자가 속한 교단의 원로목사 중 한 분이 은퇴를 하시면서 몇 가지 후회의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았다. 그중의 한 가지가 교인들에게 현금 설교를 제대로 해주지 않아서 그들이 복 받을 길을 가로막았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오늘날 현금 설교를 좋아하는 교인들이 얼마나 될까? 현금에 대해서 강조하는 목사들은 돈밖에 모르는 목사라는 비난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십일조에 관한 책이 나왔다고 하면 ‘아! 누가 또 교인들 주머니를 열게 하려고 그럴듯한 논리와 사례로 가득한 책을 하나 썼구나!’라고 반응할 이들도 있을 것이다.

더글라스 르블랑의 『십일조』(Tithing)를 받아들고 처음으로 가진 필자의 생각도 적극적이지 못했다. 본서는 IVP 영성의 보화 시리즈 중 한 권으로 기획 · 출간된 것이다. 이 시리즈가 목표하는 것은 “성경 시대로부터 전해 내려오는 영성 훈련들의 가치를 재발견하여 오늘날의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한 적용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저자인 더글라스 르블랑(Douglas LeBlanc)은 목회자나 신학자가 아니라 성공회에 출석하고 있는 평신도 작가이자 기자이다.

이 책은 일단 상투적인 현금 설교나 설교론에 거부감을 가진 평신도들이 편안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다. 서문에서 영성의 보화 시리즈의 편집인인 펠리스 터클은 저자 르블랑의 “명쾌한 사고, 한결같고 탄탄한 기독교 신앙, 복잡한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내는 탁월한 솜씨에 늘 감탄하곤” 했기 때문에 고대의 일곱 가지 영성 훈련 중에서 가장 어려운 주제인 십일조에 대해서 글을 써 달라고 부탁했다고 밝히고 있다.

본서를 읽으면서 터클의 판단이 적중했음을 깨닫게 되었다. 본서는 십일조론을 기술한 것도, 십일조 설교를 한 것도 아니다. 다만 십일조를 실제로 실천하고 있는 12명의 다양한 기독교인들을 인터뷰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쉽고, 간결하며, 진솔하고, 따뜻하고, 감동적이며, 흥미진진한 특성이 있다.

저자는 이 책에 담긴 이들을 인터뷰하느라고 일곱 개 주의 여남은 도시를 다녀야만 했다. 저자는 자신의 취재에 응한 사람들은 모두 십일조(또는 하나님의 넘치도록 후하신 분이라는 더 넓은 시각)가 자신의 영적인 삶의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을 미쳤

는지를 들려주었다고 고백한다. 그리고 아버지에 이어서 자신도 십일조 생활을 실천하고 있는 평신도인 저자는 “움켜쥐고 있던 돈을 놓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돈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된다. 그리스도의 공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면 결국 우리는—어쩌면 자신도 모르게—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다. 이 모두가 결국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우리도 그분의 도구가 되기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말하며 서문을 맺는다(23쪽). 저자는 많은 이들이 염려하는 것과 달리 십일조에 대해서 율법주의적으로 접근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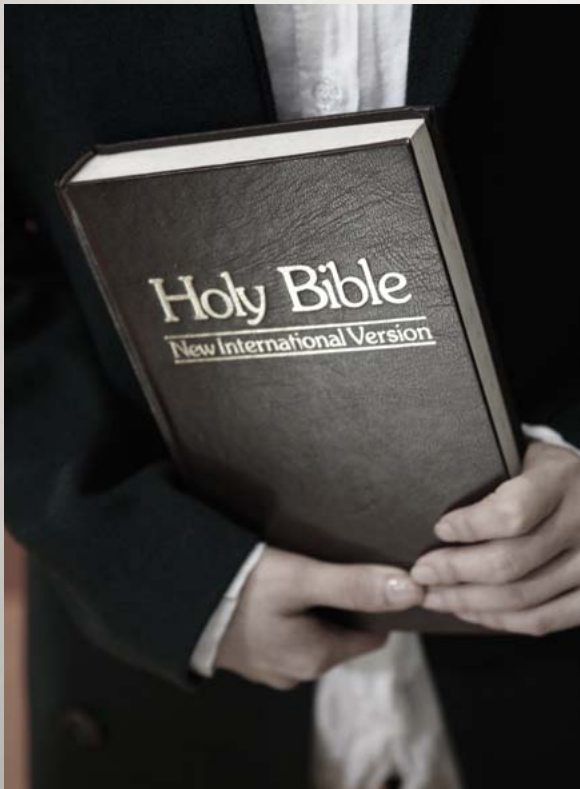
본서의 성격이 이처럼 인터뷰 내용을 간결하게 추려서 소개해주는 성격이기 때문에 다른 책처럼 장별로 요약하는 일이 쉽지 않다. 제일 좋은 방법은 독자들이 본서를 들고 그저 몇 시간 읽어보는 것이다. 그러나 내용 맛보기라도 잠시 해볼까 한다. 몇 개의 예를 소개해 보려고 한다. 1장은 『가난한 시대를 사는 부유한 그리스도인』(IVP)의 저자 로널드 사이더 부부의 이야기이다. 사이더는 ‘누진 십일조’ 개념을 소개한 사람이다. 그는 거둬 감소한 삶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부자들이 검소하게 살아야 가난한 사람들이 목숨이라도 부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찰스 버크의 말을 우리에게 소개한 준 사람이기도 하다. 그는 누진 십일조를 내기 위해서 검소하게 살아가는 일은 부담이나 억지가 아니라 ‘자유를 향한 여정을 돕는 길잡이’가 되어 주었다고 고백한다. 사이더는 미국이 너무나 소비주의에 물들어 있으며, 돈을 쓰는 방식에서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죄 가운데 살고 있다고 하면서 안타까움을 표현하기도 한다.

2장에서 르블랑이 인터뷰한 사람들은 뉴올리언스에서 사역하고 있는 제리 크레이머 부부이다. 제리가 시무하는 교회는 카트리나 때문에 큰 피해를 당했지만, 지역주민을 섬기는 교회로 다시금 일어섰다. 제리는 아내 스테이시 덕분에 십일조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다. 스테이시는 “우리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면 십일조는 출발점이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희생적으로 드리기를, 무엇을 먹든지 막막해도 일단 드리기를 원하세요.”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제리는 십일조 생활이 중요한 이유는 바른 물질관을 배우고, 우상들을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신뢰하도록 돕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그리고 “돈은 우리의 신앙을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가계부를 보면 자신이 무엇을 숭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현금본질적으로 신앙의 열매이지 목표 자체가 아닙니다.”라고 말한다.



3장에서 소개되는 프레데리키 매튜스 그린 부부는 결혼 후 34년 동안 십일조를 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매달 10 퍼센트나 그 이상을 드려왔다고 밝힌다. 이 부부가 그렇게도 철저하게 십일조 생활을 지속해 온 이유는 “십일조는 우리가 물질의 영역에서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께 헌신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었다. 이들은 하나님의 통치권이 물질계 전반에 미친다는 것에 대한 인정으로, 또한 동방교회의 전통을 통해서 배운 대로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었다.

저자가 5장에서 소개하는 랜디 알콘은 낙태 반대 운동 때문에 목회지를 잃은 사람이지만,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인세 전액을 기독교 사역 기관들에 헌금하고 있는 사람이다. 그는 처음으로 십일조를 교회에 드리는 순간에 주인의식이 느껴졌다고 고백한다. 십일조는 좋은 출발점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율법적으로 십일조에 빠지는 것은 반대한다. 그는 십일조를 헌금의 보조 바퀴라고 부른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고후 8장과 9장의 정신을 진실로 깨닫고 그대로 삶에 실천한다면 십일조는 잊어버려도 좋다고 말한다. 그는 말라기 3장에서 십일조를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이 은혜의 삶, 자원하여 드리는 삶을 살기를 갈망하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또한 “그 삶이 얼마나 재미있고 그분이 그 삶에 얼마나 풍성하게 공급하시고 복 주시는지를 우리가 알기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한다(84쪽).



르블랑이 6장에서 소개하는 사람은 제럴드 재누어리 목사이다. 제럴드는 “십일조가 자신의 신앙생활 전체를 지배하는 하나의 원리였으며 십일조를 하지 않았을 때는 고생이 뒤따랐다.”라고 고백한다. 그는 조부모에게서 십일조 생활을 배웠다. 젊었을 때 고생한 이후로 모든 소유에 대해 십일조와 5 퍼센트의 추가 헌금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사역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분명한 물질관을 가르치고 있다. 저자가 7장에서 소개하고 있는 케빈 존스는 사명 지향적 투자를 목표하는 곳 캐피탈 재단을 운영하고 있다. 그가 투자하고 있는 에버그린 여관은 갱생 시설

에서 온 청년들을 고용하여 훈련과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부와 권력을 얻는 것이 결코 해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그는 남은 생애를 “권력과 돈에 대한 사람들의 사고방식, 자본 시장, 사업 등을 구조적으로 개혁하는 일에 바치고자” 한다(109쪽).

르블랑은 8장에서 자신의 동료 기자인 마크 켈너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그는 많은 종교적 편력을 거쳐서 안식교에 정착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께서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의 주시기 때문에 헌금을 돌려 드린다는 표현을 즐겨 사용한다. 그리고 그가 십일조를 긍정하는 이유는 “자신이 그리스도인들의 더 큰 몸, 개인적 만족이 아닌 더 큰 목적에 속해 있다는 소속감을 주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118쪽). 마크는 십일조란 서로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더 깊은 소통을 가꾸는 길이자 또한 그 소통을 표현하는 길이라고 말하기도 한다(120쪽).

9장에서 소개되고 있는 에드윈 베이컨 2세 신부는 자유주의적인 성공회의 신부로 교인들에게 십일조를 권하고 있다. 그는 우리가 “돈을 드리면 하나님을 위하여 훨씬 많은 에너지가 발휘”되며 헌금하는 사람이 되면 “그만큼 의욕과 활기가 생긴다.”라고 말한다(126쪽). 그리고 그는 좀 더 심원한 이유를 밝힌다. “우리가 후히 드리면 어떤 영적인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부산물로 얻지만, 가장 값이 벌어지는 일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밖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131쪽) “십일조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십일조는 가까이 계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는 가장 단순하고 직접적인 방법 중의 하나입니다.”(134쪽) 그리고 십일조를 드릴 때에 그는 “돈을 움켜쥌 채 아까워하고 염려하던 데 대한 죄책감”에서 해방을 얻게 되었다고 고백하기도 한다. 그리고 경고의 목소리도 잊지 않는다. “십일조를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내 삶 속에서 큰일을 행하시지 못하게 그분을 막는 것입니다.”(132쪽). 지면 관계상 네 개의 인터뷰 내용에 대한 맛보기는 생략하려고 한다.

별로 두껍지도 않은 르블랑의 저서 속에는 참으로 다양한 배경에서 나온 증거의 목소리들이 담겨 있다. 어떤 경우는 서평자가 그러했듯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적어도 십일조는 구약의 율법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우리가 실천하되 바른 정신으로 실천해야 하는 영성의 보화가 된다는 점을 재인식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생각한다. 헌금이나 십일조라는 말만 들어도 터부시하거나 정죄하고 싶은 독자들은 혹시라도 인색한 마음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다.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의 말처럼 우리의 회개는 지성적 회개와 마음의 회개뿐 아니라 돈 지갑의 회개도 따라와야 한다는 점을 애써 부인하고 싶은 것은 아닌지 물어보고 싶다.



이상웅 계명대학교와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M. Div.)을 졸업한 후에 암스테르담 자유대학교 신학부에서 수학했으며, 총신대학교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Th. M., Ph. D.)를 취득했다. 대신대학교 전임강사와 대구 산격제일교회 담임목사를 역임했으며, 현재는 총신대학교신학대학원 조직신학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저서는 「조니단 에드워즈의 성령론」(부흥과개혁사)이 있다.

어느 국회의원의 고해성사



어떤 신부가 성역을 잘 마치고 은퇴하게 되었다. 교인들과 친구들이 조출한 송별회를 준비하였고, 송별사는 그 교구에 속한 한 국회의원이 하기로 했다. 시간이 되어 참석자들이 다 모였으나 국사에 바쁜 국회의원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다. 기다리면서 잡담을 나누다가 노 신부가 자신이 처음 부임했을 때를 회고하였다. “사실 이 교구에 부임했을 때 걱정이 태산 같았지요.

부임 후 첫 번째로 고해성사를 한 사람이 사기, 거짓말, 헐박, 뇌물, 탈세, 간통 등이 세상에 죄란 죄는 다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교구에서 과연 제대로 사목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걱정했지요. 그래도 하느님의 은혜로 잘 마치고 이렇게 무사히 물러날 수 있어 참 감사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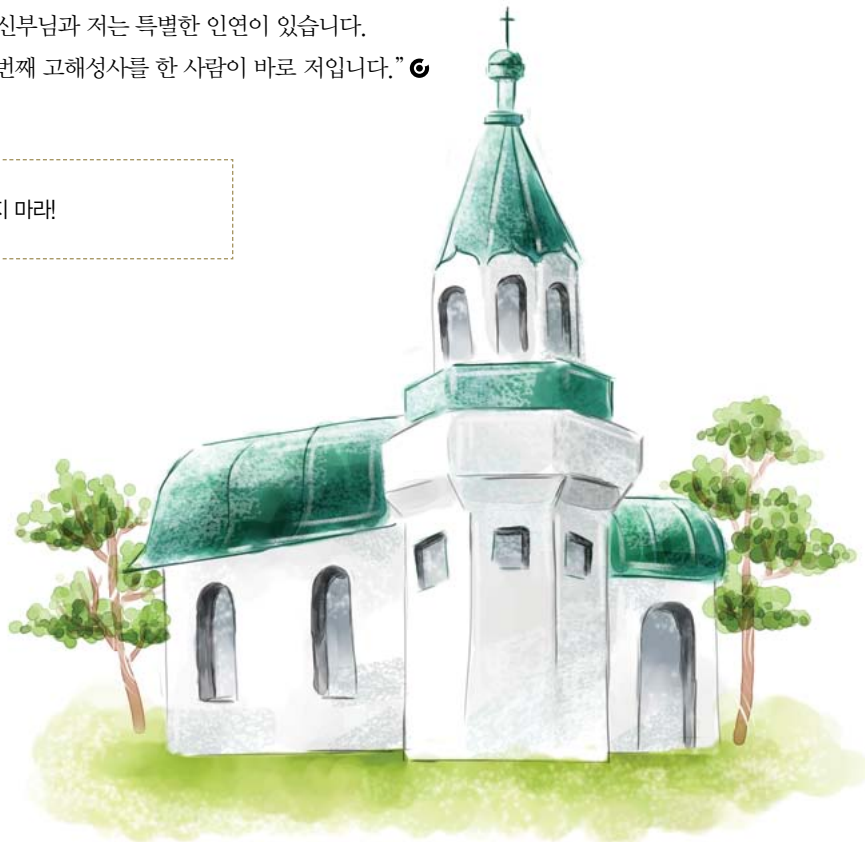
그러자 기다리던 국회의원이 도착했고 송별회가 시작되었다.

송별사를 시작한 국회의원 왈

“여러분은 잘 모르실 것입니다만 이 신부님과 저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다. 신부님이 이 교구에 부임하신 후 첫 번째 고해성사를 한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교훈 절대로 모임에 늦지 마라!



WORLDVIEW NEWS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8기 개강

10월 6일(토)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 8기가 개강합니다. 국제크리스천아카데미(SICA)에서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진행되며 매주 다양한 커리큘럼의 기초세 계관강좌와 미디어 수업이 있습니다. 매년 봄, 가을 학기에 모집하는 기독교미디어아카데미를 통하여 1인 미디어 시대를 준비하는 귀한 동역자들이 양성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cmca.or.kr)

■문의 02-754-8004 (담당: 홍정석 간사)



제29회 기독교학문학회 개최

제29회 기독교학문학회가 오는 11월 10일 토요일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에서 개최합니다.

이번 학회는 “SNS&CNS”(크리스천의 SNS)를 주제발표로 합니다. 신앙과 학문의 통합에 관심 있으신 많은 분들의 참여 부탁드립니다.

■일시 11월 10일(토) 오전 10:00-18:00

■장소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방목학술정보관 국제회의실/ 경상관

■오전은 대학원 세션, 오후에는 주제강연과 각 분과별 발표가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worldview.or.kr)

■문의 02-3272-4967 (담당: 신효영 간사)

신앙과 학문 발행

한국연구재단 등재학술지 <신앙과 학문> 17권 3호가 9월 30일 발행하였습니다. 다음 17권 4호의 발행은 12월 31일이며, 논문접수는 상시투고입니다. 기독교적 학문 연구에 관심 있으신 신앙과 학문을 통합하고자 하시는 청년, 목회자, 교사 및 교수님들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문의 02-3272-4967 (담당: 신효영 간사)

제2회 다니엘 아카데미 실시

다니엘새시대교회에서 주최하는 “문명의 전환 시기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가 10월 16일부터 11월 20일까지 매주 화요일 저녁 7시에 서울영동교회 교육관 5층에서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서 기독교적 세계관 구현을 위해 애쓰는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문의 02-3411-1437

(다니엘새시대교회 담임목사 박희영)

사무국 소식

월드뷰의 새로운 사진작가가 동역합니다. 박정현 작가는 크리스체너티투데이 초대작가이며 현재는 프리랜서로 일하면서 캠페인 활동 및 다수 사진전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수고해주신 월드뷰의 김건주 편집장과 본 단체의 오랜 동역자인 차명실 간사가 사임하였습니다.

월드뷰 독자후기

월드뷰의 고도의 학문적인 문장과 필적이 나를 더욱 움츠리게 하지만, 읽을 때마다 무언가를 알아가고 배운다는 행복감이 홀로의 삶을 풍성하게 해줍니다. 캐나다 밴쿠버 신학교에서 기독교세계관을 공부하는 딸(김성경)이 세상 직업 내려놓고 뒤늦게 신학의 길을 가게하신 하나님의 깊은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려고 애쓰는 삶이려면,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처럼 신속히 날아가는 인생의 노년이네요. 지나간 태풍과도 같은 휘몰아치는 비바람을 겪으면서 목회여정들을 추억하며 이 땅 위에 세우신 교회들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겠습니다.

-일산에서 김영숙 님-

“김영숙 님께는 「지성과 영성의 만남」(홍성사)를 선물로 드립니다”

최고의 브랜드

It's You

2013학년도
고신대학교 신입생 수시모집

- 수시 2차 원서접수
2012. 11. 12(월) ~ 16(금)
- 접수방법 : 인터넷원서접수
www.kosin.ac.kr
www.uwayapply.com
- 입학문의 : 051) 990 - 2141



고신대학교에서
세계로 통하는 브랜드가 된다!



 **고신대학교**
KOSIN UNIVERSITY



영도캠퍼스 송도캠퍼스 천안캠퍼스

영도캠퍼스(대학본부) 606-701 부산광역시 영도구 와치로 194(동삼동 149-1) TEL. 051) 990-2114 | FAX. 051) 911-2525
 송도캠퍼스 602-702 부산광역시 서구 감천로 262(압남동 34번지) TEL. 051) 990-6406 | FAX. 051) 241-5458
 천안캠퍼스 330-150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535-31(삼룡동) TEL. 041) 560-1999 | FAX. 041) 560-1971

제 5회 전국 대학(원)생 기독교학술대회

참된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가진 전국의 기독교 대학생들에게 기독교적 학문함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 5회 전국대학(원)생 기독교학술대회를 개최하오니, 관심 있는 대학(원)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행사개요>

주제 : 성경적 세계관을 토대로 자신의 전공과 신앙의 통합을 꾀한 글
 참가 대상 : 전국 대학교의 대학(원)생 (3명 이하의 사람이 한 팀을 이룰 수 있음, 지도교수님 지정도 가능)
 분량 및 형식 : A4용지 15매(한글 폰트 10기준) 내외로 서론 본문 결론의 형식을 갖춘 서술형 글, 요약 2매 별도(참고:MS word로 작성 요망)

<수상 선정 및 시상>

제출된 글 중 우수한 글 6편을 선정하여 아래와 같이 시상
 - 대상(1편) : 1,000,000원
 - 최우수상(2편) : 500,000원
 - 장려상(3편) : 300,000원

<대회 일정>

- 참가신청 : 2012년 9월 10일부터 10월 20일까지 주제를 정하여 참가 신청 접수
 - 논문 제출 기한 : 2012년 11월 05일
 - 예선 통과자 발표(서면 심사결과 발표) : 2012년 11월 16일
 - 최종 발표 장소 : 한동대학교 (장소 추후 공지) *외부참가자 교통비 제공
 - 최종 발표 및 심사 : 11월 23일

<대회 참가신청 및 문의>

- 신청방법 : 한동대학교 : HISnet에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메일 송부
 타 대학생 : 첨부된 신청서 다운로드, 작성 후 메일 송부
 hdcupc@naver.com
 - 문의처 : 기독교대학 발전위원회
 tel. 010-4807-3284 (엄문재)

주최: 한동대학교 총학생회
 주관: 기독교대학 발전위원회, 학문과 신앙 연구소
 후원: 기독교 학술 교육 동역회, 기독교 세계관 동역회





Laboratory Industrial

100년 역사
양심을 다는 저울
오하우스



오하우스 코리아

서울 강남구 수서동 713, 현대벤처빌 1025호 TEL. (02)2040-6388, FAX.(02)2040-6392
www.ohaus.co.kr

